

이라크전쟁 교훈 분석

이 성 만
(공군사관학교 교수)

I. 서	론
II. 전쟁	경과
III. 전쟁	분석 및 평가
IV. 교	훈
V. 결	론

I. 서

론

1. 전쟁의 대강(大綱)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작전명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 Freedom)을 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공격을 실시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

간 전쟁을 수행한지(2001. 10. 7~12. 22) 1년 3개월 만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여 세계에 확산하고 있으며 테러집단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다.

미국은 선전포고보다 30분 앞서 크루즈 미사일 40발을 발사하고 F-117 스텔스 전폭기 2대를 동원해 바그다드 시내에 후세인이 있다는 한 비밀병커를 공격했다. 후세인을 초기에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공격은 실패로 끝났으며 이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최첨단 전력으로 이루어진 공군력, 공격헬기, 기동성 있는 기갑/기계화부대를 통합, 과감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구사하여 4월 9일 전쟁개시 21일 만에 결정적인 작전을 종료했다. 초전에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군에게 고전하는 것 같았으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첨단무기로 무장한 정밀폭격의 효과와 신속한 지상군의 기동으로 이라크군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거의 이라크군의 저항없이 바그다드공항을 확보하고, 시내 중심부로 전차를 진입시키자 후세인 정권의 저항은 순식간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¹⁾

2. 전쟁 배경 · 원인

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관계가 소련과의 양극(bipolar)대결 관계로 전개되는 데 따라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채택하고 소련의 군사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억지(deterrence)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발생한 소련연방의 붕괴와 걸프전은 냉전시기 형성된 양극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 주도의 일초(一超)다극주의의 세

1) 후세인은 이라크전 개전 이후 잠적 268일만인 2003. 12. 14일 티크리트 남방 15km, '압둘라'지역 농가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었다.

계질서가 형성되면서 세계전략은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러 ‘포용 및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테러와 반테러라는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특히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2002년 9월에 발간된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²⁾ 미국이 당면한 위협은 대규모 함대나 군대보다는 소수의 적 수중에 들어간 첨단기술무기이며, 봉쇄나 억지같은 전략은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선제공격, 예방적 개입, 핵무기 사용 불사, 그리고 불량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권교체(regime change)까지 도모하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외교정책으로 소위 ‘부시독트린’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을 뒷받침 해주는 이념적 근거는 「신보수주의」³⁾이다. 이들은 Hobbes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을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 개입주의를 주장하며 ‘공세적 현실주의’(전통적 보수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유엔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미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만의 단독적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 부시행정부의 신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mpter 2002)의 주안점은 대략 3가지 분야로 정리된다. 첫째는 정치·경제적 자유 제고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증진이다. 둘째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안보의 확보이다. 셋째는 갈등지역과 우방을 아우르는 포용 및 관련정책이다. 원문은 백악관의 홈페이지 참고. <http://www.whitehouse.gov/nsc/nsc.pdf>.

3)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에 선진자본주의의 위기 봉착(유가인상, 환율불안정)으로 ‘작지만 강한정부’ 구현을 부르짖으며,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식과 공화당의 강력한 반공주의적 신보수주의로 발전, 1989년 전통적보수주의 색채의 부시행정부와 1993년 진보주의적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으로 약화되었다가 2002. 9. 11 테러 발생으로 결정적 부활의 계기가 되었음.

이를 위해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RMA를 가속화하여 지상군 숫자를 줄이고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면서 보다 빠르고 가벼운 구조로 변화(transformation)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⁴⁾은 냉전시대의 억제(deterrence) 및 봉쇄(containment)와 같은 피동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공격을 받은 후에 보복하는 전략보다는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선제공격 전략이 보다 안정성을 지니기 위해서 MD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및 연합국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2년 9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테러 및 WMD 위협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필요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반테러 국제연대 및 연합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으로서, 이는 상당부분 신보수주의자 진영의 사고와 전략을 받아들인 것이다.

나. 미국의 대이라크 인식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을 치른 뒤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테러전이 제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선포하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다. 부시는 이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이들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이들 국가들을 정권교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4) 현재 행정부내 신보수파(Neo-Conservatives)들은 Dick Cheney 부통령, John Bolton 국무차관, Donald Rumsfeld 국방장관, Paul Wolfowitz 부장관, Richard Perle 국방정책자문위원들이 해당되고 학계에서는 Eliot Cohen 교수, 언론계에서는 Fox News와 Weekly Standard 등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여론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이나 연합국에 공격을 해 오기 전에 미국은 이들 정권들을 타도해 이들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일방주의적 대외전략에 입각해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악의 축’으로 지목된 세 국가들 가운데서 표적 1순위인 이라크의 정권교체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연합국 안보를 위해 이라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외에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이를 기점으로 중동지역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편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이는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다른 독재정권들까지 영향을 받아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현재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대는 현재 미국과 연합관계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독재정권들에게도 해당된다. 중동지역 전역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미국 안보의 위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어 회교도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간 분쟁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동지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석유의 안정된 공급⁵⁾으로 미국의 경제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을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할 경우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라크의 정권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다. 이라크의 대응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을 목표로 내걸고 이라크 침공을 선언한 마

5) 미국의 중동산 원유의존도는 2000년 24%이나 2020년에는 50% 수준까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나 OPEC국가의 대부분이 회교권 국가로서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2위로서 질이 좋고 채굴단가도 낮아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Washington Post, April 20, 2003, p. A20 ; London Daily Telegraph, July 19, 2002, p. 1.

당에 후세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자발적 퇴진, 곧 망명을 하거나 비자발적 퇴진, 곧 쿠데타나 봉기로 어쩔 수 없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말고는 침공을 멈추게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옥쇄나, 퇴진이나의 갈림길 밖에 없는 것이다. 후세인 대통령은 침공 위협이 높아지면서 여러 차례 ‘결사항전’을 외쳐 왔다.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의 군사력 앞에 무력으로 맞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옥쇄’하겠다는 뜻으로 비쳤다. 그는 이미 각 도시에 이주금지령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는 “조국을 저버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여기서 죽을 것”이라며 망명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웃한 요르단과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은 최근 “후세인 대통령과 아들 등 50여 명이 나라를 떠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거나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라크 내부에서 쿠데타나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국내에 이렇다할 야당세력이 없는 데다 반체제 단체들도 지지가 반이 약하다. 군 또한 철저한 통제아래 묶여 있다. 후세인 대통령은 1979년 명실상부한 제1인자가 된 이래 1995·96년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원한 쿠데타 기도를 비롯해 여러 차례 반란을 진압하면서 감시를 강화해 왔다. 고위 지휘관을 정기적으로 순환시키고 바그다드시 인근 배치 부대는 무장하지 못하게 하며 극소수에게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봉기세력이 결집하기도 어려웠다. 가족과 족벌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라크 사회에서 후세인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종족과 연합 종족에겐 특혜를 주는 반면 반대 족장에겐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는 분할통치로 일관해 왔다.

물론 후세인 체제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들·사촌·배다른 형제 등 가족·친척 내부에서 권력 쟁탈을 둘러싼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암살을 기도했던 불만세력도 있다. ‘후세인 이후’를 겨냥한 새 통치체제의 등장이 가시화되면 현 체제를 지지해온 이들도 돌아서는 등 권력기반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라크 종전 후 그를 떠받들던 세력들이 어디로 갔는지 붕괴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후세인 정권은 견고한 통치구조를 자랑하고 있었다. 후세인 대통령의 버티기는 집권기반이 나름대로 탄탄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침공이 확정된 상황인데도 대규모의 군 이탈자나 난민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없고 수도 바그다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20여 년 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 지지그룹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권력구조를 구축했다. 최측근 그룹은 가족과 출신 종족인 '알 부나시르'의 일족, 타하 야신 라마단 제1부통령과 타리크 아지즈 부총리 등 오랜 동료들이었다. 후세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핵심 친위세력인 특수보안조직과 정예 공화국 수비대의 지휘를 맡겨 놓고 있다. 이 그룹 외곽에 이슬람 수니파에 속하는 연합 종족들, 집권 바트당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 시아파의 쿠르드족 일부도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제재기간 동안 권력에 붙어 부를 쌓는 특혜를 얻으면서 후세인 체제에 충성하고 있었다.

두 그룹 둘레에는 성직자와 지방지도자, 작은 종족 촌장 등 사회통제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이면에서 '그림자 국가'로 기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전쟁과 경제제재로 보건·교육·주택 등의 행정기능이 허약해져 이라크인들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통로인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그룹을 호위하는 것은 강력한 보안기구들이다. 일반보안·특수보안·정보 등 3개 조직이 가동하고 있고, 군사정보·보안을 맡는 2개 조직이 또 있다. 관영 「I&A통신」을 비롯해 바트당 기관지 「알 타우라」와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 우다이가 운영하는 「바벨」 등 각종 언론도 후세인 대통령의 영향권아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라크는 미국에 대항해 전략적으로도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갖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비록 그러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쟁

수행중 대체로 드러난 것이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군사강국이었으며, 막강한 공화국 수비대가 버티고 있었다. 후세인 친위부대인 공화국 수비대는 6만~7만여 명으로 구성된 최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다. 후세인의 둘째 아들 쿠사이가 지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지원병으로, 요원의 자질과 충성도가 매우 높으며, 야간투시장비를 갖춘 최신식 러시아제 T-72 탱크 등 A급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 맞설 수는 없기에 미국이 단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장기전을 구사하려 했던 것 같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유발한 다음 반전여론을 힘입어 미국과 정전협정을 맺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해지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겸 혁명지휘위원회(RCC) 의장은 포고령을 내리고 이라크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등 전쟁에 대비해 항전태세에 들어갔던 것이다. 후세인이 내린 포고령에는 각 지역 사령부가 담당지역 방어와 함께 모든 재정과 인력, 군, 기구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지대지 미사일과 항공자원 사용에 대한 권한은 후세인 대통령이 쥐고 있었다. 이라크 전력은 1차 걸프전 때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서 정면대결보다는 지구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세인은 전국에 분산배치된 정규군과 협력 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담페다인」 같은 준군사조직을 이용한 후방교란에 대해 크게 기대했을 지도 모른다.

3. 전장환경

가. 국제기구/국제사회 동향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전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유엔무기사찰단 136명은 철수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부분은 영국의 이라크 무장해제 제안을 반대했으며,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러시아·프랑스·독일은 대이라크 무력공격을 계속 반대해 왔으며, 공격개시 하루전 멕시코도 반대입장을 공식표명 했고, 사우디는 이라크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터키 의회에서도 미군의 영공 통과 관련 사안이 3월 19일 재표결 결과 거부되었다. 중국도 국무원 총리를 통해 이라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일관된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총리가 “미국의 무력행사 결단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WMD테러 사용 가능성, 과거의 유엔결의, 미·일 연합의 중요성 등을 들었다. 게다가 이시바 방위청 장관은 중동지역 일본인 보호 및 난민지원 목적의 자위대기(C-130)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폴란드도 이라크전 지원병력 200명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는 개전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었다. 개전이 임박하면서 프랑스는 만일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때는 미국주도의 전쟁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는 등 입장의 동요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영국은 미국의 대이라크전 계획부터 지지입장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보건부/내무부 차관 및 하원지도자는 유엔결의안 없는 이라크전 강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후 사임하는 등 분열현상을 보였다.

3월 18일 이라크 공격 하루 전, 부시 대통령이 대이라크 최후통첩을 발표한 후 미 국무부에서는 이라크전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30개국이 동참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⁶⁾

6) 미국은 국제연대국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영국, 스페인, 호주,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덴마크, 엘살바도르, 터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그루지야,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을 열거했다. 파월 미 국무장관 발표(2003. 3. 18).

나. 이라크 개황⁷⁾

(1) 일반사항

이라크는 서남아시아 아라비아반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그다드가 행정수도로서 정식명칭은 이라크 공화국(The Republic of Iraq)이다. 이라크의 총면적은 434,920km²으로서 한반도의 약 2배가 되고 있다. 국경선은 총 길이 3,668km이고 해안선은 58km로서 남-북 최장거리는 1,390km이고 동-서 최장거리는 1,250km이다. 접경국가는 터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6개국이다.

이라크의 지형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중심으로 북부 및 북동부에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쿠르디스탄 산지가 있으며 남부 지역은 광대한 사막이 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사막성 건조기 후로써 전반적으로 고온건조하여 여름(5~9월) 평균기온이 38~49℃이나, 북부 산악 지역은 겨울이 추운 관계로 눈도 내린다. 강우량은 쿠르디스탄 산지에 연간 400mm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조기인 6~9월에는 월평균 1mm 이내, 우기인 3월에는 28mm 정도다.



7) 이라크에 대해 잘 정리된 자료로서는 미 CIA의 「The World Factbook」을 참조.
<http://www.odic.gov/cia/publication/factbook/geos/iz.html#GEO>.

정치체제는 공화제로서 1968년에 아랍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했다. 종족은 아랍인 79%, 쿠르드족 16%, 기타 5%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언어는 아랍어가 공용어이며, 쿠르드족이 쓰고 있는 쿠르드어가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전국민의 95%이며 이 중 시아파가 55%, 수니파가 40%이며, 다음으로 기독교가 4%이며 기타가 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2001년 기준하여 150억 달러(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정도 되고 있다. 한국과는 1981년 영사 관계, 1989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역 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수메르,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등의 고대국가가 흥망하였으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알렉산드로 대왕, 사산조 페르시아 등의 외부 침입과 정복이 있었으며 7세기 중반 아라비아반도에 이슬람교가 출현하면서 이슬람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8세기 중반 압바스 왕조 시대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현재까지 수도로서 존속되고 있고 11세기 중반 이후 셀주크, 몽골, 티무르의 지배를 받다. 153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약 400년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후 1920년까지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실시되었으며, 1921년 입헌군주제로 독립하게 되었고 1958년 이라크혁명으로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80년 이란 침공,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등으로 페르시아만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되었다.

(3) 정치·외교

1968년 쿠데타로 아랍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바트당이 집권한 이후 사실상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9년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1인 독재의 철권정치를 실시하면서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수상직과 집권 바트당의 서기장을 겸임하고 있다.

내각은 대통령실, 부통령실, 수상실, 4개의 부수상실 외 21개 부처로 구성

되어 있고, 1980년 처음으로 총선이 실시되어 정원 250명, 임기 4년의 단원제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바트당이 계속 집권해 후세인 대통령의 권력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중동지역 비연합운동의 지도국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반미·반이스라엘 노선을 유지하였으며 1968년 바트당 집권이후 아랍사회주의 바트당이념인 범아랍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내셔널리즘을 유지하였다.

(4) 경 제

이라크는 국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계획관리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의 99%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로 석유 수출이 중단되자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나, 1996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⁸⁾으로 석유 수출이 재개되어 경제 사정이 다소 호전되었다. 일일 원유 생산량은 249만 배럴이며, 일일 원유 수출량은 21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⁹⁾

농업은 건조기후로 인해 경지율이 12%(경지면적 6백만ha) 정도에 불과하며, 정부의 식량자급화를 위한 중농정책에도 불구하고 걸프전 후유증 및 1996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이후 수입한 식량을 국민에게 무상배급 해주고 있어 농업생산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공업은 내수용 제조업 및 석유화학공업 위주로 발전하였으나, 1990년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해 퇴보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확보된 재원으로 낙후된 기존 생산설비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광물은 원유 및 천연가스 외에 유황석, 인광석, 동 등이 있으며, 건설 재료가 되는 대리

8)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 : 1990년 걸프전의 결과로 수출입이 제한된 이라크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과 석유산업 유지보수 부품 등에 한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동 물품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로 1996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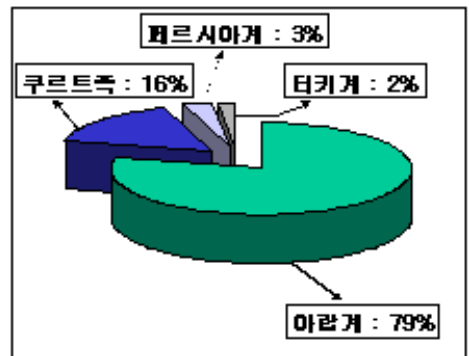
9) 2003년 2월 기준,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

석, 모래, 진흙, 석고 등이 전국토에서 생산되고 있다.

(5) 사 회

인구 2,333만명(2001년 기준, 외교 통상부)중 아랍계 79%, 쿠르드족 16%, 페르시아계 3%, 터키계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공용어인 아랍어 이외 1970년 이라크 정부-쿠르드족간 평화협상 결과로 쿠르드어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풍속, 생활양식 등이 달라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주요 내란 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같이 소수민족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북부 쿠르디스탄 지방에 거주(약 430만명)하고 있다. 1974년 이라크 정부가 쿠르드족에게 3개의 자치주를 인정하였으나 자치지역내 유전지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족하여 민족저항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이라크 정부는 1975년부터 쿠르드족에 대한 강경정책을 취했으며 1987~1989년 사이에 진행된 쿠르디스탄 초토화 작전(화학무기 사용)으로 수십만명 사망 및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걸프전 직후에도 쿠르드족 봉기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2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종교는 국민 대다수가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95%가 이슬람 교도로서 북부지역에는 수니파, 남부지역에는 시아파가 분포되어 있다. 교육은 1972년부터 전교육과정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문맹률(15세 이상 42%)이 높다. 언론은 국가에서 통제하며 주요 일간지 4개, 국영방송/텔레비전 방송국 6개, 라디오 방송국 4개 등이 있다.



〈인구 분포도〉

II. 전쟁 경과

1. 전쟁준비

가. 전력현황 및 전개

(1) 연합군¹⁰⁾ 군사력 현황

육군은 병력 93,650명(전개 및 투입대기부대 미포함)으로서 부대규모는 미 육군 173공수여단, 3기계화보병사단, 4기계화보병사단, 10산악사단(-), 82공정사단(-), 101공중강습사단, 영국 1기갑사단, 호주 5항공연대(-) 및 16방공연대(-), 체코 및 슬로바키아 화학지원부대 등이 있으며, 작전지역 투입대기는 3기갑 수색연대(텍사스), 1기계화 보병사단(독일)이, 전개대기는 1기갑사단(독일), 1기갑 보병사단(텍사스)이 맡았다. 전력은 에이브럼스 탱크 및 브래들리 장갑차 1,800대, AH-1/64 공격 헬기와 OH-58D, UH-60 등 200여대, 155mm 자주포, 다연발 로켓,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있다.

해군은 총병력 75,153명으로서 항공모함은 걸프해역에 미 해군 항공모함¹¹⁾ 컨스텔레이션, 루스벨트, 키티호크, 링컨, 니미츠와 지중해에 트루만, 영국 아크로열 및 헬기모함 오션함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함정은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핵잠수함, 기타 지원함 등 약 120여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력은

10) 연합군(Combined Force)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대, 다국적군(Coalition Force, Multinational Force)은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그의 군대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각국 고유의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협동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연합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국적군도 연합의 한 형태로 분류함.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1998. 12). 위 견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Combined Force/Coalition Force를 모두 '연합군'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1) 미 해군 각 항공모함에는 8,000여명의 병력과 75~85대의 함재기가 탑재되어 있다.

〈표 1〉 연합군 군사력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기 타	계
육군	병력	67,000명	26,000명	호주 : 200명 체코 등 : 450명	93,650명
	전력	탱크 / 장갑차 : 1,800대 공격헬기 : 200여대			-
해군	병력	70,000명	4,000명	호주 : 1,100명 폴란드 : 53명	75,153명
	전력	항공모함 8척(영국 헬기항모 포함) 함정 및 잠수함 : 120여척 항공기 : 500여대			-
공군	병력	37,000명	8,100명	호주 : 470명	45,570명
	전력	총 항공기 : 1,600대 전투기 : 900대, 지원기 : 100대, 헬기 : 600대			-
해병	병력	70,000명	4,000명	-	74,000명
	전력	항공기 : 100여대 탱크, 장갑차, 곡사포 등 지상 전투장비			-
특수 부대		5,000명	1,000명	호주 : 300명 폴란드 : 130명	6,430명
소 계		249,000명	43,100명	2,703명	294,803명

* 출처 :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3. 4. 23).

F-14, F/A-18, 해리어 FA-2, 해리어 GR-7, E-2C, EA-6B, HC-4, AH-7 등 함재기 500여대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이 탑재되어 있다.

공군은 총병력 45,570명으로서 부대규모는 미 16특수작전비행단, 52전투비행단, 28폭격비행단, 509폭격비행단, 1/4전투비행단, 347구조비행단, 49/55비행단, 6공중 급유비행단, 43공수비행단, 60기동비행단 등 13개 비행단과 제11무인정찰기대대, 영국 6개 비행대대와 호주 1개 비행대대 등이 있다. 전력으로서 A-10, F-15/16/18, F-117, 재규어, 토네이도, 해리어기, B-1/2/52, AC-130, E-3D, EC/MC-130, KC-135, RC-135, C-5, KC-10, AWACS, RQ-1 Predator, VC-10, 헬기 등 1,600여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은 병력이 74,000명으로서 1해병원정군, 2해병원정여단, 15/24/26 해병원정부대, 영국해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서 AV-8B, CH-46/53, AH-1 등 100여대의 항공기와 수륙양용장갑차, 탱크, 곡사포, 박격포 등 지상 전투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수부대로서 병력은 6,430명으로서,¹²⁾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에서 참가했다.

(2) 이라크 군사력 현황

육군 병력은 375,000명으로서 7개 군단, 23개 사단, 4개 특수공화국수비여단, 특수부대(999부대, 5개 특공여단, 2개 특전여단)가 중부, 북부, 남부, 남서부 지역사 등 4개의 방어책임구역으로 구분하여 맡았다. 중부지역사는 남·북부 2개 군단 예하 6개 사단, 4개 여단 및 기갑/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단명은 아드난 기계화사단, 함무라비 기갑사단, 네부차네차 보병사단, 니다 기갑사단, 메디나 기갑사단, 바그다드 보병사단 등이다. 북부지역사에는 1군단과 5군단 예하에 8개 사단이, 남부지역사에는 3군단 및 4군단 예하에 6개 사단이, 마지막으로 남서부지역사는 2군단 예하에 3개 사단이 맡고 있었다. 육군의 주전력으로서 T-55, T-62 및 T-72 탱크 2,200대, BMP-1/2 등 장갑차 3,700대, 야포 2,500여문, 공격헬기 100여대, 수송헬기 275대, FROG-3/5/7 및 SCUD 등 지대지 미사일(SSM) 97기 등이다.

해군 병력은 2,000명 수준이며, 함정은 과거 구축함 38척 대부분이 폐기되고 연안경비 가능 수준의 미사일정 6척, 기뢰 제거함 4척, 정찰함 5척, 지원함 3척 등 18척을 보유하고 있고 기지로서 Basra, Az Zubayr, Umm Qasr

12) 미군 특수부대로서 Navy SEALs, Delta Force, Night Stalkers, Army Rangers, 그린베레, 공군 특수작전군(SOF: Special Operations Forces) 등 병력 5,000여명이 있으며, 영국은 SAS(Special Air Service), Paras(Parachute), SBS(Special Boat Service), Gurkhas 등 병력 1,000여명, 호주는 SOF(Special Operations Forces), SASR(Special Air Service Regiment), IR(Incident Response), Commandos, 전술 강습부대 등 300여명, 폴란드 GROM, 오염제거반 등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이 있다.

공군의 총병력은 약 20,000명이며 전력은 H-5D, Tu-22, Mirage F-1, MIG-21/23/25/29, Su-7/22/24/25, An-2/12/24/26, IL-76 등 전투기 316대 (폭격기 6대, 공격기 130대 포함)와 기타 지원기 및 헬기 포함 775대를 보유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지속된 공습, 비행금지구역 설정, 통상금지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가동률은 약 55% 이하의 수준이다.

〈표 2〉 이라크 군사력 현황

구 분		이 라 크	비 고
육군	병력	375,000명	- 정규군, 공화국수비대 등
	전력	탱 크 : 2,200대 장갑차 : 3,700대 야 포 : 2,500여문 헬 기 : 375대	
해군	병력	2,000명	- 미사일정, 기뢰제거함, 정찰함 등
	전력	총 함정 : 18척	
공군	병력	20,000명	- 폭격기 : H-6D, TU-22 - 전투기 : MIG-21/23/25/29, - 공격기 : F-1, SU-7/20/22/24/25
	전력	총 항공기 : 775대 전투기 : 316대 지원기 : 176대 헬 기 : 283대	
방공사령부		17,000명	- 지대공 미사일 : SA-2/3/6/7 - 대공포 : 2,000문
준군사부대		44,000명	- 보안군, 민병대
총 계		429,000명	

* 출처 :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3. 4. 23).

※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정규군 병력규모 100만명, 탱크 5,500대, 장갑차 9,000대, 포 3,700문, 전투기 689대, 구축함 38척이었으나 이라크전 발발시 총병력 42만9천명, 탱크 2,200대, 장갑차 3,700대, 포 2,500문, 전투기 316대, 전투함정 18척 수준으로 감소.

방공사령부에는 예하 병력이 17,000명으로서 주전력은 SA-2/3/6/7/8/9/13/14/16, Roland, Aspide 등의 지대공 미사일 및 발사대 850개, 대공포 2000여문(23mm, 37mm, 57mm, 85mm, 100mm, 30mm) 등이 있다. 또한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는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등 4개의 방공책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기타 준군사부대로서 15,000~20,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담 페다인 민병대와¹³⁾ 비밀경찰, 군 정보요원, 기타 민병대 등 약 4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유사시 전투 병력으로 전환되었다.

나. 지휘체제

(1) 연합군 지휘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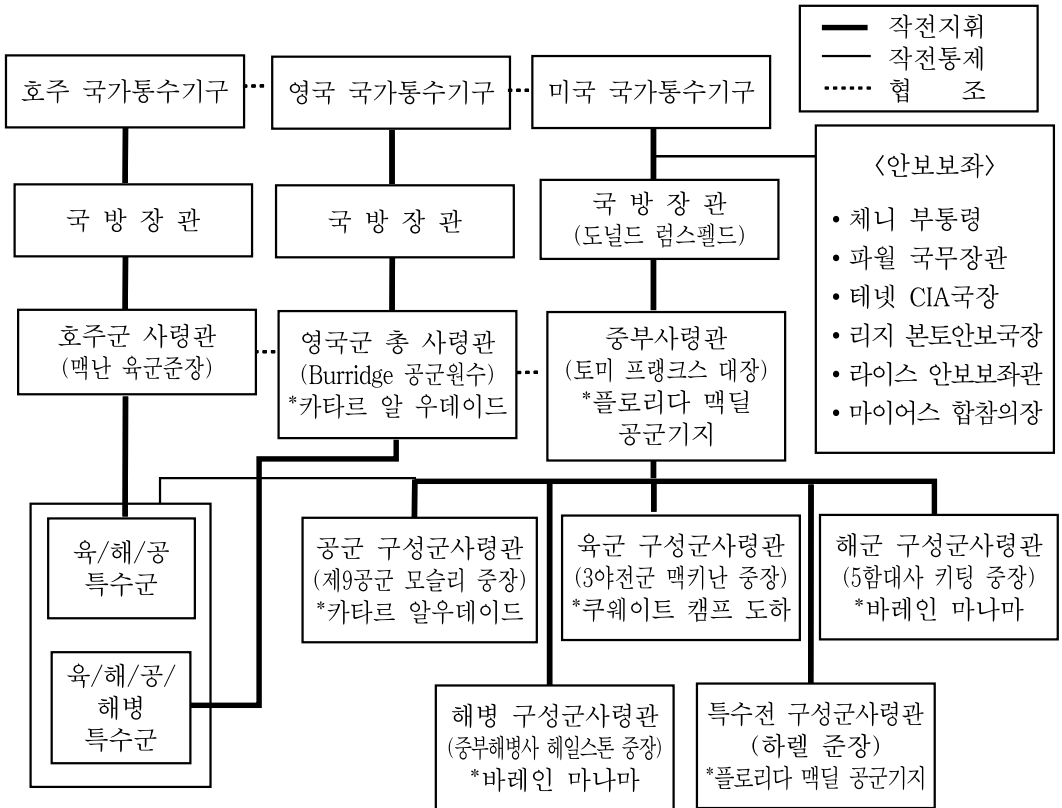
연합군 구성현황을 보면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33개 파병국 중 11개의 다국적군이 직접 전투에 참가 했던 것과는 달리 금번 이라크전쟁은 역사적 연합국이자 같은 영어권 문화인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로 성공적인 연합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참전국 수뇌부에서 토미 프랭크스 중부사령관을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선임, 연합 군사작전에 대한 지휘 및 통제권을 위임하고, 각 국의 파견군은 각각 자국군의 지휘권을 보유토록 했다. 지휘체계도는 <표 3>과 같다.

미군 지휘체계에서 전쟁수행에 관한 전략적 지침 등 중요한 사안들은 국가안보회의¹⁴⁾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라크전쟁 수 시간 전에 국가안보회의에서

13) 사담 페다인 민병대 : 1995년 창설된 이라크의 준군사조직으로 평시 반체제 인사 감시 등 사찰임무 수행해 왔으며, 사담 페다인은 바그다드 외곽지역에 배치되어 이라크 정규군의 사기를 돋우고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고, 이 조직은 사담 후세인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국가안보회의 구성 :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럽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정책결정을 위해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애스 합참의장, 테넷 CIA국장이 배석하여 자문역할 담당.

〈표 3〉 연합군 지휘체계도



부시 대통령은 테넷 CIA국장과 마이어스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개전의지를 굳히고 전군에 작전명령 하달 및 국가의 총체적 노력결집을 통한 승전을 위해 전시내각을 구성했다.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작전명령권은 없었으며, 연합군 지휘체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된 것은 합동참모본부가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기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제도는 국가통수기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을 통하여 군정과 군령이 하달되며, 국방장관으로부터 군정은 각군 성으로, 군령은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합사령부로 하달되고,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면서 결정된 전략지시를 각 통합사령부에 하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3군 병립구조를 가지면서 세계 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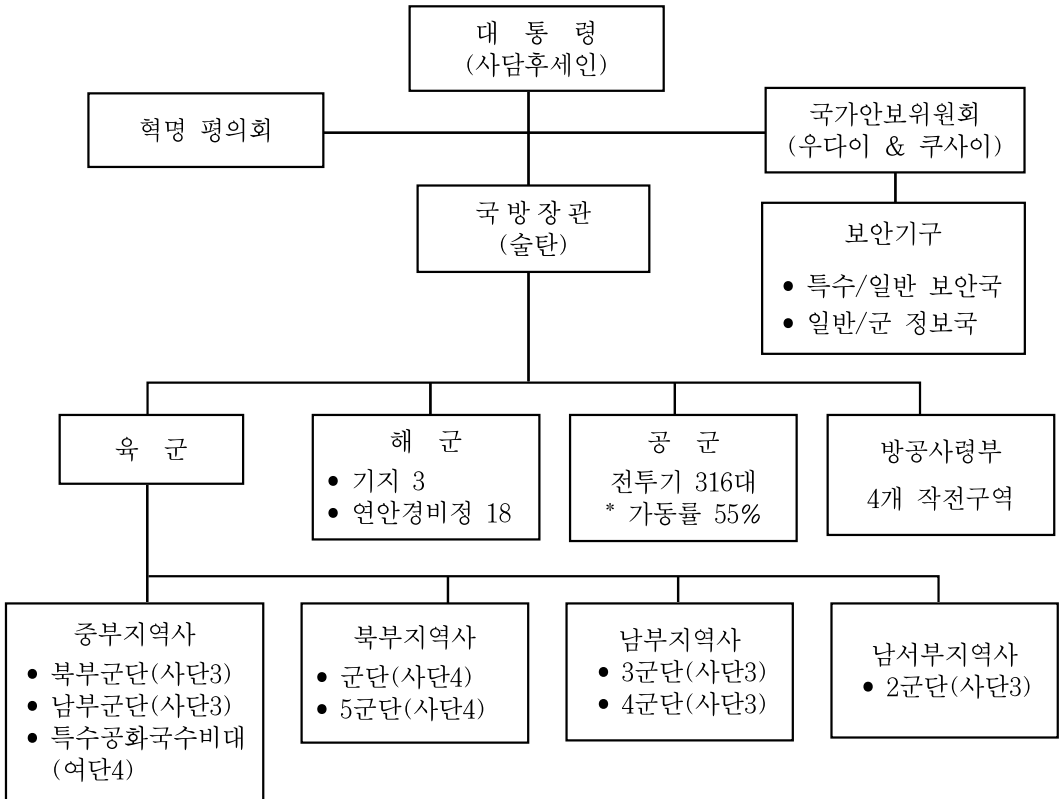
역의 분쟁개입을 위해 각 전구별 통합사령부를 운영하며, 통합사령부는 미국 본토방어를 담당하는 북부통합 사령부, 유럽 및 대서양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유럽통합사령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방어를 담당하는 태평양사령부,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과 중앙 아시아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중부통합사령부, 중·남 미지역을 담당하는 남부통합사령부 등 5개 지역 통합사령부와 전략, 특수전, 합동전력, 수송통합사령부 등이 포함된 4개의 기능 통합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전쟁지휘체제가 상이한 점은 합참의장의 역할수행으로 걸프전 당시 파월 합참의장(현 국무장관)은 정치적 전쟁목표와 지침 내에서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전쟁수행 부대규모 등 기본적인 작전 방침 결정, 중부 통합사령관의 요구병력 전개 등의 기능을 수행한 반면, 이라크전쟁에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에 대한 고유의 자문과 전략지시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미군의 지휘체제는 국가통수기구에서 전쟁목표와 전략적 정책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통해 프랭크스 중부사령관 → 각 구성군사령관 등의 계선으로 하달되며, 영국과 호주 군은 부대 전개 및 후방지원을 제외한 작전통제를 중부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연합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2) 이라크 지휘체제

이라크의 국가지휘부는 사담 후세인이 국가의 대통령, 정부의 수상, 바트당 의장(혁명평의회), 군 최고사령관을 동시 역임하며 24년 동안 철권통치를 함으로써 정권유지를 위한 독재체제 확립과 가족 및 동향출신에 의한 통치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라크의 모든 정책결정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이며 후세인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혁명평의회와 후세인의 장남과 차남이 관장하는 정치적 사찰기구인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대부분 후세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지휘체계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이라크 지휘체계도



이라크의 전쟁지휘체제는 혁명평의회 구성원 혹은 친·인척 핵심인물 소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후세인 대통령은 이미 걸프전 이후에 효과적인 영공방어를 위해 공군으로부터 방공임무를 분리하여 대공 미사일 기지와 레이다 기지를 총괄 지휘하는 별도의 방공사령부를 창설하였고, 금번 전쟁직전 3월 15일에는 혁명평의회 포고령을 통해 지상군을 남부, 북부, 중부, 남서부 등 4개 지역 군사령부로 재편했다.

후세인은 중앙집권적 지휘를 통해 중부지역 군사령관 술탄(국방장관, 후세인 사돈), 북부지역 군사령관 쿠사이(후세인 차남), 남부지역 군사령관 알 마지드(후세인 사촌), 서남부지역 군사령관 주베이디(부 수상) 등으로 지휘체제를 확립했고, 장남 우다이는 후세인이 직접 특별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담 후세인(게릴라 조직)에 대한 총책을 맡고 있었다.

아랍 전문 사이트인 알바와 닷컴 보도에 의하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개전 이틀 전에 정부각료들도 모르는 비밀 지휘통제본부로 거처를 옮긴 후, 미국의 통신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령을 통하여 모든 군사작전 지시를 내렸었다. 이는 미국이 알-카에다의 빈 라덴을 추적하기 위해 녹화 테이프의 배경장면과 공기 청정도까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를 사용할 경우의 위치파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세인은 전쟁 중에 고위 각료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없이 비밀지휘통제본부에서 자필문서나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등에 작전지시 내용을 담아 전령을 통해 고위각료나 군사령관들에게 전달했다.

2. 전쟁수행

가. 전쟁목표/전략개념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WMD의 수평적 확산방지다. 미국은 12년간의 이라크에 대한 WMD사찰 및 폐기노력이 더 이상 성과가 어렵다고 판단, 무력으로 이를 색출 및 강제폐기 결정하면서 또 다시 WMD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후세인 축출 및 민주화 추진에 있다. 둘째는 반테러 캠페인 강화측면이다. WMD 기도세력과 테러 자행세력간의 공조 및 결탁분위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동질서 개편에 있다. 전후 이라크관리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핵심적 교두보로 구축하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공조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타 실리론으로서 중동석유의 안정적 확보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이라크 정치·군사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세인 제거 및 바트당을 해체하고 공화국 수비대 및 친위대를 격

멸하는 것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이라크군의 무장해체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익에 유리한 종전처리로서 안정화작전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개념은 우선,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 이라크군을 마비 및 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초기에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여 이라크군의 항전의지를 말살하고 바그다드를 직접 겨냥한 군사력을 운용하여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라크내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단계별 군사작전

전쟁수행은 작전의 성격상 개략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후세인을 직접 겨냥한 참수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목적달성에 실패하였고 이어 ‘충격과

〈표 5〉 연합군과 이라크군의 단계별 군사작전

	D (3. 20)	D+1 (3. 21)	D+5 (3. 25)	D+17 (4. 6)	D+26 (4. 15)	
육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군	1단계		2단계		3단계	
연 합 군	“Decapitation” (「후세인」 제거) 전쟁지휘체계 무력화 ※ 「후세인」 제거 실패	“Shock & Awe” (단기 전쟁종결 시도) • 공습/지상전 동시 전개 ⇒이라크군 전쟁의지 박탈 • 다정면 동시전투 강요 ⇒바그다드 포위 여건 조성 ※예비부족, 병참선, 기상 ⇒진출 지연	“PLAN-D” (先 남·북부 전선 형성 後 바그다드 점령) • 증원전력 투입이전까지 이라크군 손실 강요 • 바그다드 포위/ 결정적 작전 준비 ※바그다드 조기 포위		“결정적 작전” • 증원전력 투입 ⇒공격기세 유지 • 바그다드 함락 티그리트 함락 ※전후처리 준비/시행	
	이 라 크 군	“지역양보, 동맹군 유인” 분산/회피⇒초전 피해 최소화		“바그다드/티그리트 결전 준비” 동맹군측 피해 강요(위장/기만전술 구사) 바그다드/티그리트 접근 최대 저지 장기/지구전 준비(시가전) ※전쟁지휘체계 마비/저항의지 포기로 조기 붕괴		

공포'를 통한 단기전쟁종결 목표하에 지상군을 조기에 투입하여 성공이 목전에 다다른듯 하였으나, 예비대 부족, 병참선 위협 및 모래폭풍으로 진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먼저 남북부 동시 전선을 형성한 후에 중심을 점령한다는 PLAN 'D'로 계획을 변경하였다.¹⁵⁾ 최종적으로 증원병력 투입과 병행하여 이라크 중심을 장악함으로써 약 4주만에 실제전투를 종결시킨 반면, 이라크군은 바그다드 결전전략에 따라 지역을 양보하면서 유인 전술을 채택하였으나 전쟁지휘체계 마비 및 저항의지 포기로 조기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기능/형태별 군사작전

(1) 지상작전

개전 21일만에 후세인 정권의 심장부인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결과는 개전 2주 당시 남부전선에서 이라크군과 민병대가 연합군 보급로를 차단하는 후방 차단, 자살공격 및 게릴라전으로 전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전혀 상반된 결과다. 연합군 지상군이 이라크 최남단 페르시아만부터 바그다드까지 500km가 넘는 전장 중심거리를 진격 후 바그다드 함락까지 단 3주일만에 놀라운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지상군 작전개념¹⁶⁾으로서 우선 연합군의 지상 작전단계는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1단계는 쾌속 진군, 2단계는 주요 전략요충지 확보 및 전력보강이며, 3단계 바그다드 포위 및 압박, 마지막 4단계가 시가전이다. 이를 위한 주요 작전개념으로 동시, 병행, 속도전 및 시가전의 3가지가 있다. 동시작전은 대규모 공습과 동시에 특수부대 중심작전과 이라크 중심을 지향한 비선형 진격

15) PLAN 'A' 바그다드 남·북부 동시공격, PLAN 'B' 공습/바그다드 남측면 공격, PLAN 'C' 바그다드 남·서측면 공격, PLAN 'D'선 남·북부 전선 형성, 후 바그다드 점령.

16) 중부사령부 연락장교 보고서, 「이라크 자유작전 개황」(서울: 합참. 2002. 4. 24), pp. 4-8.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고, 병행작전은 남부, 북부, 서부에서의 동시 압박과 특수부대 전력을 중심에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속도전은 이라크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바그다드 함락을 목표로 바그다드 이전의 도시들을 우회하여 기동함으로써 기동속도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가전은 장갑성과 신속 기동성을 이용한 새로운 시가전술을 전개하는 것이다.

주공인 5군단을 나시리아-나자프-바그다드 방향으로, 조공인 미 해병 제1원정대는 아말라-알콧-바그다드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하여 바그다드를 조기에 확보하고 영국군 1기갑사단은 바스라로 진격하여 바스라 및 남부지역을 공략하는 것이다. 173공정여단은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쿠르드족과 협조하여 북부지역의 이라크 2개 군단을 고착 견제하고, 미 특수부대는 시리아 국경지역과 인접한 서부지역에서 비행장을 확보하고 국경을 통제한다. 특수부대 전력은 이라크 내부 중심 깊은 지역에서 적진지 공격, 교량 및 도하장소 확보, 유류 저장시설과 주요시설 확보와 정밀표적 공습을 위한 표적 획득 및 항공기 유도 등 공군지원 임무를 실시한다.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적시 적절한 전투근무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 1단계 작전

1단계 작전기간은 3월 21일(D+1)~3월 24일(D+4)로 볼 수 있다. 주요 작전 전술로서 첫째, 대규모 공중공습과 동시에 조기 지상전력을 투입하고, 둘째, 신속진군으로 이라크군



전투의지를 격렬하면서 입체적 압박작전을 수행하며 셋째, 영토점령이 아닌 주요 전략요충지/진출로를 확보하고 우회공격을 실시한다. 넷째, 기계화 장비(탱크 및 장갑차, 경전차) 및 공격/기동헬기를 이용한 진격이다.

작전은 3월 21일 02:00경 먼저 미 제3보병사단, 제1해병원정군이 쿠웨이트 접경지역에서 지상작전을 전개했다. 동시에 미 7기갑 부대와 헬기는 이라크 남부지역을 통해 바그다드로 진격했다. 다음날 미 101공중강습사단이 이라크 남부지역으로 진격함과 동시에 영국 특수부대가 이라크로 진격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 미·영 연합군은 바스라 및 나시리아를 장악했다. 3월 24일에는 미·영 연합군은 바그다드 남쪽 80km까지 진격했으며 같은 날 미국 특수부대는 쿠르드족의 지원을 받아 북부 모술, 키르쿠크 등지에서 주요 거점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 2단계 작전

2단계 작전은 전략요충지 및 병참선을 확보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단계로서 그 기간은 3월 25일(D+5)~3월 30일(D+10)로 볼 수 있다. 주요 작전 전술로는 우선, 특수부대를 통한 북부 전선의 전력강화, 쿠르드족 지원 하에 북부 주요도시 거점 확보 주력, 후방 점령지역(바스라, 움카스트) 안정화 주력 및 병참선 확보, 마지막으로 「先 이라크 남·북부 전선장악, 後 바그다드 진격」으로 작전계획 변경 등이다. 이를 경과별로 보면 3



월 25일에 연합군이 바그다드 남쪽 80km까지 진격후 메디나 기갑사단과 교전하고 미 제1해병 및 영 1기갑사단이 움카스르를 완전 장악하고 바스라 시가전을 시작했다. 남부전선에서는 예비전력 부족으로 후방안정에 주력하면서 진격속도를 조절하였다. 다음날 독일주둔 1기갑 및 1기보사단이 쿠웨이트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된다. 3월 27일에는 미 173공정여단이 '아르빌'비행장을 장악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라크 공화국수비대의 전차/차량 1천여대 및 병력 3천여명이 바그다드 남쪽 100km 카발라와 나자프지역으로 이동하여 연합군 주력과 교전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군은 3월 28일 「先 남·북부전선 장악, 後 바그다드 진격」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한 후 다음날 29일에 미 3보병사단 선두가 바그다드 남쪽 50km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30일에는 바그다드 외곽 주요 전략요충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다) 3단계 작전

작전 3단계는 바그다드 포위 및 압박으로서 기간은 3월 31일(D+11)~4월 6일(D+17)이 된다. 주요 작전 전술로서 우선 전면적인 지상공격 자제 및 바그다드 포위 및 고립, 바그다드 외곽 공화국 수비대에 대한 공격 실시, 바그다드 동, 남동, 남서쪽 3개 방면에서 포위, 압박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작전경과로서 3월 31일에 전략요충지 및 병참선을 확보하고 주력 전열 및 재정비하여 바그다드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4월 1일에는 중·남부 전선쪽으로 병참선 확보에 주력하면서 북부전선 구



축을 위한 필수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다음날에는 대규모 공중공습에 따라 공화국 수비대의 전력이 약화되면서 공격작전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4월 2일에는 중부전선 카발라, 힐라, 쿠트 일대에서 이라크군을 집중공격하여 바그다드사단을 격퇴하게 된다. 4월 3일 중부전선에서 이라크 1차 방어선을 돌파 후 바그다드로 진격하여 메디나 사단을 격퇴하게 된다. 같은 날 미 3보병사단은 바그다드 외곽 10km까지 진격하고 다음날 사담 국제공항을 점령하게 된다. 4월 4일에는 해병 특수부대가 바그다드 외곽 6km까지 접근하여 정찰 및 진출로를 확보한다. 다음날 2차방어선 돌파후 바그다드를 포위하고 바그다드 시내 진격후 회군하게 된다.

(라) 4단계 작전

4단계는 바그다드 시가전 및 함락단계로서 4월 7일(D+18)~4월 9일(D+20)까지이다. 주요 작전 전술로서는 바그다드 포위, 압박강화 및 바그다드 시가지 중심 공세적 위력 수색 및 주요 전략적 요충지 확보, 이라크 반군과 특수부대 바그다드 투입, 후세인 대통령 체포 또는 사살작전, 우뢰진격 작전(Thunder Run Operation)수행¹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작전경과를 보면, 4월 7



17) 미 육군 3사단장 Buford Blount 소장은 시가전에 탱크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공군에 의한 항공력 지원하에 탱크의 기동성과 장갑성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Hit & Run) 전술과 쿠데타 방식으로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바트당사, 방송국 등 주요거점지역을 확보하는 일명 ‘우뢰진격 작전’(Thunder Run Operation)을 실시하여 단시간에 바그다드 점령.

일 09:20경, 미 3보병사단이 바그다드 심장부에 전격 진입하여 대통령궁 3개 소 및 공보부 청사, ‘알라시드’호텔 등을 장악하게 되고, 미 해병1사단은 바그다드 남동쪽으로 진입하여 이라크군과 교전하게 된다. 다음날 미 보병3사단 및 1해병사단이 티그리스강 동남쪽 및 주요도로를 장악하고 이어서 4월 9일 드디어 미 보병3사단이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서북쪽 및 동쪽으로 확장하여 바그다드 중심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되었다.

(2) 해상작전 수행

해군력을 통한 작전은 ①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한 정밀공격, ② 항모탐재 항공기를 통한 공중공격, ③ 소해작전, ④ 해상수송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앞의 ①과 ②는 항공작전에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소해작전은 남부이라크로 인도적 지원작전을 위한 물자수송 및 연합국 후속부대의 ‘움카스르’항 안전입항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약 9일간 실시되었으며 소해/탐색함 8척과 MH-53 소해헬기 2개 전대, 돌고래, 무인잠수정, 잠수요원 등이 동원되었다. 또한 미 해군 제1특수처리반¹⁸⁾이 최초로 전개되었으며, 무인잠수정(UUV)도 최초로 투입되었다. 또한 해군은 총 22만톤의 화물을 수송하는 등 총 수송량의 85%가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3) 항공작전 수행

(가) 개 요

연합군의 이라크전 항공작전 수행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표 6〉 참조).

항공기 출격 쏘티를 임무별/군별로 보면 〈표 7〉과 같다. 이를 목표 공격 쏘티로 분류해 보면 〈표 8〉과 같다.

18) 제1특수처리반 : 해군SEAL/폭발물 처리반/해병대정찰 요원, 돌고래, 무인잠수정 등을 이용한 美해군의 전문소해팀.

〈표 6〉 단계별 항공작전

구 분		기 간	단계별 특징
1단계	제한 공습	3. 20~3. 21	• 바그다드의 사담후세인과 지휘부 제한공격 • 미·영 지상연합군 이라크 진격 시작
2단계	대규모 공습	3. 22~4. 4	• ‘충격과 공포’ 개념의 대규모 공습 • 지상군 바그다드 진격 및 사담공항 점령
3단계	시가전 및 평정	4. 5~4. 15	• 바그다드 시가전 수행 및 바그다드 점령 • 잔당 소탕(모술, 티그리트 등 북부지역)

〈표 7〉 임무별/군별 쏘티

(단위 : 쏘티)

구 분	미 공군	미 해병	미 해군	미 육군	영국군	호주군	계	
전 투 기	8,828	3,794	5,568	-	2,096	302	20,588	50.5%
폭 격 기	505	-	-	-	-	-	505	
지휘통제	432	75	442(E2)	-	112(E3D)	-	1,061	2.5%
정보/감시 /정찰	452	305	357	269	273	-	1,656	4%
특수작전 /구조	191	-	-	-	-	-	191	0.5%
공중급유	6,193	454	2058	-	359	-	9,064	21.7%
공 수	7,413	-	-	-	-	263	7,676	18.3%
기 타	182	320	520	-	1	-	1,023	2.5%
총 계	24,196 (58%)	4,948 (12%)	8,945 (21%)	269 (0.6%)	2,841 (7%)	565 (1.4%)	41,764 (100%)	

〈표 8〉 공격소티

구 분	KILLBOX내 지상군,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	공세제공	이라크 정부의 군 지휘통제	유도탄, WMD	이라크 비전투원의 전투지원 저지
소 티 (비율)	15,592 (79%)	1,441 (7%)	1,799 (9%)	832 (4%)	234 (1%)

또한 무장은 연합군 사용 정밀유도무기는 총 19,948발을 사용했으며, 비정밀무장으로는 9,251발을 사용했다. 이를 폭탄과 미사일로 나누어 보면 <표 9, 10>과 같다.

〈표 9〉 폭 탄

(단위 : 발)

무 장	JDAM	LGB	EGBU-27	CBU-105	CBU-103/107
사용량	6,542	8,618	98	88	818/2
비 고	GBU-31/32 /53/37 (GPS 유도)	GBU-10/12/16 /24/27/28 (레이저 유도)	GPS/ 레이저 유도	WMCD	

〈표 10〉 미사일

(단위 : 발)

무 장	BGM-109	AGM-86	AGM-88	AGM-114	AGM-65	AGM-130	AGM-84	AGM-154
사용량	802	153	408	562	918	4	3	253
비 고	TALM/ 토마호크	CALCM	HARM	헬파이어	대기감용		SLAMER	JSOW

이중 미군이 사용한 정밀유도무기로는 19,269발로서 총 사용무기의 68%를 차지하고 비정밀무기로는 CBU-87/99는 118/182발, M-117은 1,625발, MK-82/83/84은 7,202발, 20/30mm 기총은 16,901/311,597발을 사용했다. 기타 공중급유량 6천만 갤런, 공수물량 81,570톤, 공수병력은 117,125명에 이르고 있다.

(나) 단계별 항공작전 세부내용

○ 1단계 항공작전

1단계 작전은 2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이라크 지휘부 제거를 목표로 한 제한된 수량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으로 정밀 공습

한 것과 공습시작후 1단계 후반에 지상군의 전격적인 국경 돌파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작전을 수행한 점이다.

구체적인 작전수행을 살펴보면, 걸프전 이후 이라크 방공망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으로 전쟁개시 이전 연합군은 제공권의 대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제한된 항공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여 전쟁의 주목적인 후세인과 지휘부에 대한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참수공격은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기 투입된 특수전 부대와 CIA요원에 의한 후세인 소재 확인 후 국가안보기구에서 신속하게 공격을 결정하고 수행해 나갔다. 또한 주요 표적으로서 바그다드, 티그리트의 사담후세인 거주 지역, 군 지휘부와 야전군의 통신 차단을 위한 표적, 바스라 지역의 화학무기 투발 수단 및 서남부 지역의 방공망을 선정하여 공습한 것이다. 1단계 작전에서 합동직격탄(JDAM) 및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전 초기 제한된 폭격을 실시하여 후세인을 포함한 이라크 전쟁지휘부에 대한 선별적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이라크 지휘부와 이라크 병사들의 항전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심리전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단계 항공작전

2단계 작전은 4가지로 특징되는데 우선 1차 대규모 공습으로서 전쟁 시작 후 ‘충격과 공포’¹⁹⁾ 작전수행을 위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다음에는 악기상으로 인한 지상 및 공중작전이 제한되는 시기다.²⁰⁾ 또한 2차 대규모 공습단계로서 악기상으로 인한 소강상태 후 본격적인 작전 수행단계이며 이라크 중·남부에서 이라크군의 비정규전 수행에 따른 전선교착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바그다드 공략준비로서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 대한 장악과 바

19) ‘충격과 공포’ 전략의 최초 창안자는 해군 구축함장으로 걸프전에 참전한 헬런 우먼(H. Ullman)과 국방부차관 출신인 제임스 웨이드(J. Wade)가 1996년 발간한 ‘충격과 공포’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독트린으로 채택한 것이다.

20) 악기상 : 소나기, 모래폭풍 15/30kts(황사보다 심한 악시정 상태 지속).

그다드 공격을 위한 교두보로서 사담국제공항(바그다드 국제공항) 점령시기이다.

작전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전 후 본격적인 대규모 공습 시작으로 제공권의 95%를 확보하면서 항공 공격과 지상군지원 임무에 치중하게 되었다. 전투기 및 폭격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의한 이라크 전 지역의 전략표적을 지속적으로 공습하면서 바그다드 공략을 위한 대통령궁, 군지휘부, 공화국 수비대 등에 대한 집중폭격으로 전투력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이라크 정규군과 산발적인 교전 및 사담페다인 민병대의 비정규전 수행에 대처하면서 지상군 진출을 위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병행 실시했으며 3월 26일에는 이라크 방송시설에 대한 e-폭탄(BLU-114)을 사용한 정밀폭격으로 이라크 국영방송이 45분간 중단되고 일부 시설이 무력화되었다. 이로써 이라크 국영방송을 통하여 전쟁에 관련된 선전방송이 차단되었다. 한편 심리전 수행을 위해서 이라크군의 와해, 투항 유도를 위한 전단들을 살포 하였으며, 사담국제공항 점령으로 바그다드 공격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전수행으로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으며 바그다드 일대에 배치된 공화국 수비대들은 도시에 산개하여 재배치되었다. 공습으로 인한 공화국 수비대 손실률을 보면 메디나 사단(70%), 바그다드 보병사단(80%), 함무라비 기갑사단(25%), 아드난 기계화사단(30%), 네브차네짜 보병사단(20%), 니다 기갑사단(20%) 등이 현격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북부와 남부지역에 배치되었던 정규군단 예하 일부 부대들도 바그다드 방향으로 남하 중 연합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CAS)에 의하여 무력화되었다.

○ 3단계 항공작전

3단계 작전은 2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그다드 시가전 및 함락단계로서 사담국제공항(바그다드 국제공항) 점령 이후 바그다드 시가지에 대한 척후 및 함락 단계이다. 다른 하나는 평정 및 잔적소탕 단계로서 바그다

드 점령 후 안정화 및 후세인의 최후 거점인 티그리트 함락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미 국방부는 4월 14일 대규모 전투는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게 된다.

작전수행은 이라크군의 조직적 저항 방지를 위한 지휘통제시설을 집중 공격했으며 지상군의 시가전을 위한 바그다드 중심부와 외곽 공화국 수비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또한 특수부대 침투 지원을 위한 발전소를 공습하였는데 여기에는 e-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알 만수르 지구내 이라크 지휘부 회의장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한 벙커 침투폭탄(Bunker Buster) 투하하여 후세인 및 지휘부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전결과로서 집중된 공습에 의해 공화국 수비대 및 저항세력이 도주하여 지상군의 격렬한 바그다드 시가전 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상군의 바그다드 진격시 예상되는 강한 저항세력을 제거하였으며 후세인 대통령의 회의장소로 추정되는 알 만수르 지구에 대한 정밀폭격후 이라크군 지휘체계가 붕괴되었고 바그다드 시가전을 수행하는 전투력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북부지역 공중공격에 의해 이라크 지상군 전투력 수준이 30~40%로 저하되어 조직적인 저항능력이 상실되었다.

(다) 항공력에 의한 시가전

금번 이라크전은 공군의 정밀타격능력 향상으로 항공력에 의한 시가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다. 여기에는 우선 감시와 표적획득을 위해서 프레데터와 글로벌호크 등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 획득된 표적정보를 통제센터에 실시간 전송하여 분석 및 공격을 결정하게 한 것이다. 또한 통제센터는 공격이 결정된 표적에 대한 공격명령과 표적정보를 체공중인 항공기에 전파하였으며,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공격기들이 바그다드 상공에서 체공하면서 공격명령 수령후 임무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공격기 탑재무장은 정밀공격에 적합한 무장으로써 장애물이 조밀한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괴력이 비교적 적은 500파운드 폭탄이나 시멘트 폭탄 등을 사용했다. 공격기들은 지상군의 요청에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최대체공을 위한 연료와 최대한의 무장을 탑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전은 항공력으로 도심의 표적을 공격하여 아군이나 민간인 피해 없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 초기 작전에 대한 중부사령관 발표(3. 23)²¹⁾

- 항공작전 : 이라크 정부의 주요 C³, 통합방공망, 지대지미사일에 대한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공격
- 특수작전 : 특수부대의 이라크 침투후 후세인 위치 파악, WMD, 미사일 탐색, 주요 석유저장소 보호(이라크 남부 아라비아만의 3개 저장소)
- 해상작전 : 이라크 해군 파괴, 아라비아만 기뢰제거(139개 제거)
- 지상전 : 루마일라 유전 점령(500개 유정 중 9개 방화, 개전 전 방화됨), 이라크 중심침투

라. 이라크의 대응작전

이라크의 전쟁목표는 후세인의 정권유지에 있으며 전략으로서 초기공습에 대한 초전 생존성을 보장하고 바그다드 지역에 대한 미 지상군의 침입을 거부하여 이라크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공습을 이겨낼 경우 미국은 소모전을 경계할 것이며 결정적인 지상전을 회피할 것이다.

만일 전쟁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는 시가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미군의 공습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로부터의 이점과 위장술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되고 미군공습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라크군의 수적 열세와 기동성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지 작전이 성공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 위치한 미국시설들에 대한 공격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정권이 붕괴될 경우 제3국으로도 도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21) www.defenselink.mil/news/Mar2003/n03221.html03222003-2003.

그러나 개전초기 이라크의 대응은 미미하였는 바, 이는 걸프전시 38일간의 대규모 공습과 후반 4일간의 지상전을 겪은 이라크로서는 공중전력과 지상전력의 동시투입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걸프전 및 전후 10년간 지속된 미 공군의 전략폭격과 경제제재 등의 여파로 정상적인 전력운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라크의 방어계획은 지상군 위주의 계획으로 후방 미군기지 공격 및 바그다드 요새화, 시가전 수행이었기 때문에 전력 대부분이 이라크 북부 및 동부, 그리고 바그다드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격에 대비 기습적으로 남하하였는데, 이라크군의 남진은 모래폭풍 등의 악기상과 남부지역 이라크군과 민병대의 게릴라식 후방차단으로 인해 진격에 애로를 겪고 있던 연합군에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전쟁분석 및 평가

1. 정치적 측면

가. 전쟁명분과 의지

개전초 미국은 물론 세계전역에서 반전활동이 전개되었으나, 인명 중시의 전쟁수행 노력과 후세인 정권 제거에 대한 명분으로 점차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명분 미약으로 전쟁 자체에 대한 세계적 반전과 회교권 국가들의 반미감정이 결합되어 대규모 반전 집회 활동은 물론 인터넷과 미디어를 이용한 세계적 반전여론이 전개되어 미국과 영국은 세계도처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전활동에 당혹스러워 했으나 전쟁은 그대로 감행되었다. 그 대신 전쟁수행 중 세계여론을 인식한 민사, 공보, 심리작전들이 수행되었으며, 폭

격시에도 부가적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미국과 영국 내에서도 연일 대규모 반전활동이 있었으나, 미국의 경우 70%의 지지를 받을 만큼 전쟁수행 중 점차 전쟁지지 여론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수행 이전에 UN 안보리이사국인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이라크 공격에 관한 안보리 표결을 전격 철회하고 전쟁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UN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단장인 한스 블릭스(Hans Blix)의 이라크 사찰결과 보고서를 이라크의 기만전술에 속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해 버렸다. 문제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보다는 후세인이 1988년도에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쿠르드인 5천명을 집단 살해한 것을 근거로 후세인 정권 제거에 명분을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 미국이 판단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²²⁾

- 탄저균(25만 리터), 보툴리누스균(3만 8천 리터) 등 대규모 생물무기 생산
- 사린(500톤), VX(200톤), 겨자가스(2,000톤) 등 화학무기 및 탄두 비축
-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추정

이라크전에서의 조기승리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 유일 최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지도자적 입지를 견고히 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대

22)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October 2002, www.odci.gov/cia/reports/iraq-wmd/Iraq-Oct-2002.html.

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향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테러와의 전쟁’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확립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1년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과 2002년 국가안보 전략 연례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Annual Report)를 통해 밝힌 ‘테러와의 전쟁’과 선제행동(Preemptive Act)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조기 종전과 승리는 전쟁의 정당성을 두고 행해진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웠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의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나 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변국들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

미국은 이라크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초기 전쟁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였으며, 향후 중동을 포함한 해외전진기지와의 전력의 재배치가 요망되게 되었다. 미국은 아프간전쟁에서 다우닝 계획(Downing Plan)²³⁾을 적용하여 반군을 활용한 전쟁수행을 하였으나 아직도 전쟁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훈에서 이라크전쟁에서는 쿠르드족 이용을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계획은 터키의 비협조(쿠르드족 독립 문제를 염려하고 자국 기지 사용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미국에 요구함)로 인해 미 지상군을 터키를 통해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투입하려던 최초계획을 변경하여 북부지역 작전에 쿠르드족을 이용하였고, 공격의 집중투입 방향은 남부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23) 김재명, “미 국방부 기밀자료로 본 ‘죽집게 공습’으로 바그다드부터 초토화!,” 『신동아 2003. 2월호』(서울: 동아일보사, 2003. 2), pp. 453-454. 다우닝계획은 현지 반정부세력과 미 특수군 전력을 이용한 임시정부 수립후 이라크군 내부 이탈자를 발생시켜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활약했던 다우닝의 계획으로 이는 아프간전 모델로 적용되었으나 이라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부시행정부의 판단으로 취소되었다.

남부지역에서의 압박작전은 매우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북부지역에서의 압박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루어졌다.

사우디 술탄 왕자는 전쟁중 미국에 협조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고, 종전후 사우디를 방문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미군에 대한 비협조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프린스 술탄기지에 있던 합동공군작전센타(CAOC)를 카타르로 이전하였고 사우디 내의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해외 전진배치 기지와 전력에 대한 재배치가 예상된다.

다. 후세인의 국제정세 오판

후세인은 안보리 승인 부결 및 반전여론 형성 노력 등의 외교적 노력에 더 집중함으로써 전쟁시기를 오판하였고, 대외적인 안보협력관계는 형식적으로만 유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안보 연합관계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후세인은 전쟁이전 단계에서 UN 무기사찰을 적극 수용하여 알 사무드 2기, 미사일 67기를 폐기시키는 등 미국의 전쟁의도를 경시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오판하는 등 세계적 반전 여론 형성과 UN 안보리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룬 후세인은 개전이 되고서야 바그다드 북쪽과 동쪽에 있던 사단을 남쪽으로 배치하였지만, 이러한 뒤늦은 기동은 연합군 항공력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아랍연맹 22개국의 형식적인 지지 표명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군사력 지원은 없었다.

2. 전략적 측면

가. 조기 제공권 장악과 지상군의 신속기동전략 보장

전쟁이전 이라크 방공망의 무력화는 현대전의 최우선적 전략목표인 제공권

을 조기 장악함으로써 승리 여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이전에 이미 연합군에 의해 제공권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제공권 장악은 전 전장에서 적 공군력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태로 현대전에서 최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작전이며, 제공권 장악은 승리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 의해 약 12년간 비행금지구역(No-Fly-Zone)이 설정되었고,²⁴⁾ 남·북부 감시작전(Operation Southern/Northern Watch)과 사막의 여우작전(Operation Desert Fox, 1998. 12. 17~12. 20)을 통해 이라크의 군사지휘시설과 대공포, SAM기지, 레이더 기지 등 방공망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었다. 1999년 한 해에만 총 17,000 쏘티(지원기 포함)를 투입하는 등 이라크전쟁 직전까지 계속된 공격으로 사실상 이라크 군대에는 공군력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지상군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꼴이었다. 따라서 연합군의 항공력은 개전 초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공세 및 방어제공 임무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전력을 전략표적 공격과 지상군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 CSIS 연구소의 Anthony H. Cordesman은 이라크전쟁의 제공권 장악은 개전 초부터 거의 완벽할 정도의 수준이며, 이와 같은 수준의 제공권은 항공력을 가진 보통의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달성되기 힘든 수준이라며, 미국은 너무나 약한 이라크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주의(Triumphalism)에 도취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기도 하였다.²⁵⁾

특히 이라크전에서 항공력에 의한 대규모 공습과 함께 지상군이 신속하게 기동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제공권을 달성한 항공력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였다. 소규모 지상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실시한 신속기동전략은

24) <http://www.defendamerica.mil/iraq/iraq-nofly.html>.

25) Anthony H. Cordesman, "The Lessons of the Iraq War : Main Report," 11th eds. (Washington DC.: CSIS, July 21, 2003), p. 139.

군수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첨단 항공력의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 TPFDD)에 의해 도착하는 전력을 지체없이 전선에 투입하여 증원전력을 기다리지 않고 전과확대를 시도하였으며, 순차적 출발(Rolling Start)²⁶⁾ 개념에 따라 이후 전개된 증원전력은 전개부대가 확보한 거점에서부터 작전을 수행하였다. 지상군의 신속기동전략은 전쟁 중반, 즉 D+9일(3월 29일) 군수상의 문제로 일시적인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즉 신속기동전략은 후방과 측방의 위기를 자초했는데, 이것은 전쟁이전에 고려한 사항으로서 이라크 게릴라전술에 의해 보급로 차단 우려가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다행히 지상군의 빠른 진격은 엄폐하고 있던 이라크군을 기동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시켰는데, 바그다드 북쪽과 동쪽을 방어하고 있던 메디나 기갑사단이 연합군의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남하를 시도했던 것이다. 바그다드에 엄폐해 있던 메디나 기갑사단이 남쪽 개활지로 남하하자 연합군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E-8(JSTARS)²⁷⁾의 표적 식별, 전략폭격기들에 의한 정밀공격(JDAM 사용)과 확산탄으로 무참히 파괴하여 바그다드의 문을 너무도 쉽게 열 수 있었다.

개전과 함께 'G-day'(지상군 투입 일자)가 선포되면서, 개전초 지상군의 신속한 기동력은 과거 걸프전과 비교시 약 4배의 진격 속도(걸프전 시속 16km, 이라크전 시속 60km)를 기록하면서 전쟁 조기종결에 원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쾌속진군이 가능했던 이유는 맥아더의 '개구리 뛰기 전술'(Leapfrogging Tactics),²⁸⁾

26) Michael Gordon, Eric Schmitt, 'Rolling start' a big risk, experts say, March 17, 2003 at Camp Doha, <http://www.theage.com.au/articles/2003/03/16/1047749662927.html>.

27) JSTARS는 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의 약자로서 한국군 사용어에서는 합동감시 / 표적공격 레이다 체계로 번역된다. JSTARS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E-8임.

28) 맥아더 장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섬들을 공략하면서 일본 본토공격을 위한

즉 우회전술 구사로 움 카스르, 나자프, 카르발라 등의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채 우회 통과했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쟁발발 이전에 이미 이라크 공군력이 파괴되어 연합군에 의해 제공권이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미지상군은 기존의 곡사포나 로켓발사기를 극소수로 제한(걸프전 대비 1/9 수준)하는 대신 대부분의 화력지원을 항공력으로 대체시켰으며, 무장의 경량화로 인한 신속한 기동은 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놀라운 진격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쿠웨이트 국경에서 바그다드까지 560km의 거리를 D+7일차만에 바그다드 80km 전방까지 진격했으며, D+15일차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진입하였고, D+19일차에는 바그다드 중심을 점령²⁹⁾하였다.

나. 네트워크 기반의 '벌떼전술'(swarming tactics) 구사

미국은 작전개시 이전까지의 선전과는 달리 첨단무기보다는 네트워크화 된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³⁰⁾는 네트워크화됨으로써 기존 전투력의 6~10배를 발휘하여 새로운 전술이 도출되었다. 즉 미국은 지상전에서 과거와 같이 전투부대가 전진하면서 그 뒤를 보급부대가 후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투부대와 보급부대가 함께 전진하면서 속전속결을 위해 포함되지 않은 표적은 우회하며, 중요 표적은 광정면에 분산된 특수부대, 전투부대 및 정밀무기가 일거에 덮치는 '벌떼전술'(swarm tactic)³¹⁾을 운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술에서의 개인화기는 소총이 아니라 퍼스컴이 기본 휴대장비가 되는 것이다.

전투수행 네트워크에는 '잽'(jab)과 '스웜'(swarm)의 두가지 공격모드가 있

사이판 등 일부만 점령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섬은 건너뛰는 전략으로 불필요한 인명손실을 줄인 바 있다.

29) Anthony H. Cordesman, "Instant Lessons of the Iraq War : Main Report," p. 5, p. 26. 진격 시간이 걸프전의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음.

30) 주로 B-52, A-10, F-16, M-1 등이다.

31) KIDA, 「2003년도 이라크 사태 상황분석」, 2003. 4. 30, p. 21.

다. 둘 사이의 차이는 IT기술이 무기속에 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직속에 심어져 있는가에 있으나 결국은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가 핵심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기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인 ‘잽’은 하나의 전투기에서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하여 어떤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스윙’은 수많은 전투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떼처럼 덩벼들어 쏘고 는 사라지는” 방법이다.

두가지 공격모드가 한결같이 IT기술을 동원하여 인공위성이 표적을 찾아내고 위성통신으로 표적위치를 알려주면, GPS 유도장치 또는 레이저 광선 유도장치를 탑재한 스마트 무기가 표적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군끼리 연락을 취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자기 여러 곳에서 나타나 치고는 빠지는 작전수행 등은 모두가 정보네트워크가 바탕에 내재하고 있다.

금번 전쟁의 핵심전술중 하나인 ‘벌떼전술’은 과도한 병참선 신장으로 이라크군의 비정규부대 기습에 노출되어 한때나마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 여론의 의문을 초래하였다.³²⁾ 그러나 미군은 일관적이고도 단호하게 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바그다드로 기계화부대를 급진시켜 이라크군의 균형을 와해시킴으로써 시가전 및 대량살상무기 운용 준비시간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시가전에서의 근접항공지원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통념과는 달리 정보네트워크 및 정밀항공폭격이 제공되어짐으로써 기갑부대의 시가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32) 이를 계기로 병참선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 미 해병은 전투근무지원 병력 4,000명이 전투부대와 동반하였으며, 미 육군은 이들 부대에 대한 호송대의 규모를 조정하고 장갑화 등을 고려하였다.

다. '효과기반작전'과 합동성 극대화

'효과기반작전'(EBO : Effects Based Operation)이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술적 조치를 말하며, 현대의 정밀화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대량파괴를 피하면서 전쟁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라크전은 적 군사력의 파괴보다는 기능마비를 목표로 수행된 전쟁으로서 '효과기반작전'에 의한 항공력 운용으로 전쟁승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항공전역의 근간이 되었다.³³⁾ 여기에는 긴급히 필요하지 않은 군사자산 및 문화·종교·역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회피하거나 우회하며, 무엇보다 탈인명살상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최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적에 대해 정밀공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라크 지휘부로부터 국민과 병사들을 분리시키는 심리전을 기반으로 하여 부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폭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BO를 가능하게 한 핵심능력은 정보자산(Intelligence Assets)에 의한 정확한 표적획득과 표적기획(Targeting Planning), 정밀폭격 등의 정보작전 능력에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폭격의 개념을 전환시키고 있다.³⁴⁾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지점(Aiming Point)에 최소한의 무기를, 한 쏘티로 몇 개의 표적들을, 최소한의 부가적 피해 발생이라는 새로운 폭격 개념 도입이 그것이다.

33) 사실상 EBO를 먼저 개척하기 시작한 군은 미 공군이다. 일찍이 EBO 개념은 월남전에 참여한 젊은 미 공군장교들을 중심으로 주창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기는 공군력을 반복하여 비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군은 EBO개념과 함께 RDO(Rapid Decisive Operations : 신속결정적작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RDO는 미국의 미래 합동작전개념으로서 지식, 지휘통제, 작전분야로 구분되며 이 세가지를 통합하여 최소의 인명살상과 물리적 파괴로 조기에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이전과 전쟁간 합동작전수행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세가지 분야중 작전분야에는 EBO와 '작전보장수단'이 포함되어 있어 RDO의 하위개념으로 EBO를 설명하고 있다.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 RDO White Paper(2002).

34) Anthony H. Cordesman, "Understanding the New 'Effects-based' Air War in Iraq," (CSIS, March 15, 2003), pp. 2-5.

따라서 EBO는 불필요한 파괴를 방지하고, 표적지역 전체를 위협한 상태로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표적지점 정밀조준무기의 효과 및 규모를 주의 깊게 연관시키게 된다.³⁵⁾

특히 ‘Shock & Awe’에 의한 대규모 항공력 운용은 적의 전쟁의지를 초전에 제압하는 심리전 효과와 이라크의 지휘통제망을 마비시킴으로써 이라크 공군과 지상군이 지휘부로부터 임무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경제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효과기반작전은 합동성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라크전쟁은 ‘첨단화·경량화·기동화’된 전력으로 합동성을 지향한 미국의 새로운 방식의 전쟁이었고, 첨단 항공력은 합동전의 핵심전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럼즈펠드를 비롯한 전쟁기획가들은 군종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동전장에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걸프전쟁은 첨단 항공력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항공력이 전쟁 결정력까지 갖고 있다는 전략사상이 대두된 현대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이라크전쟁은 병행성, 동시성, 속도, 합동성, 연합성을 강조한 새로운 전쟁으로서 지상군이 전쟁개전과 함께 투입되어 걸프전쟁 이전의 고전적인 방식을 취하였으나, 지상군의 첨단화·경량화·기동화된 전력이 항공력의 정밀공격능력에 힘입어 고속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공권 장악 임무의 필요성이 적어진 공군은 이라크전쟁에서 지상군 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고, 지상군의 고속 기동전은 항공작전 전과확대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개전 초부터 항공력에 의한 지상군 엄호 및 CAS 지원이 지상군 작전에 기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상군의 빠른 진격 속도가 이라크 메디나 기갑사단의 남하를 유발시켜 항공력으로 하여금 이라크 메디나 사단

35) 1998년 ‘사막의 여우’ 작전시 BDA 평가에 의하면 미국이 폭격한 표적의 20~30%가 데코이(decoy)이거나 텅 빈 건물이었음.

을 무력화시키는데 기여하게 하였다.

또한 항공력과 특수군의 합동작전은 항공력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수군이 표적획득후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타격까지 표적을 유도하여 합동성을 통한 전과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특수군의 표적획득은 항공 ISR에 의해 장시간동안 축적된 표적지역에 관한 항공영상자료(정보)가 있었기에 용이하였다. 항공우주자산은 항공작전, 지상작전, 해상작전 그리고 합동작전에도 정찰, 감시, 통신, 위치정보 제공 등의 필수적인 전쟁 기반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효과기반작전은 저비용 전쟁수행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첨단화는 정밀성과 치명성을 증대시켜 한 개의 표적 파괴를 위한 투입 전력과 폭탄의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장(munition)의 가격도 저렴하게 떨어뜨려 경제적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었다. 첨단무기를 이용한 선별적 표적 공격은 양적인 파괴보다는 파괴의 효과성을 지향했는데, 그 예로 GPS를 이용한 JDAM의 경우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150~200만 달러)의 1/50도 안되는 가격(3만 달러)이지만 정확도(오차범위 3m) 및 파괴력이 우수했음을 보여주었다.

〈표 11〉 전쟁비용 비교(COW ; Cost of War) : 2002년 물가 환산

(단위 : 억 달러)

전쟁 구분	WW Ⅱ	베트남전	한국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³⁷⁾	이라크전
전쟁 비용	29,000	4,940	3,030	760	70	200	256

자료출처 : CSIS,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Main Report, April 28. 2003, p. 104, p. 208.

36) 2002. 4. 20 현재 200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나, 2003년 4월 현재도 매월 4억 달러가 계속 지불되고 있다.

37) 2002. 4. 20 현재 200억불이 소요되었으나, 2003년 4월 현재에도 매월 4억불이 계속 지

불되고 있다.

또한 연합군은 표적선정시 민간 거주지역, 산업 및 사회기반시설(댐, 유정, 발전소, 교량 등)을 표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후 재건에 들어갈 비용과 이라크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며, 미군은 최소의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여 전쟁비용을 감소시키게 되었는데, 걸프전에서는 투입병력 52만명에 비해 이라크전에서는 25만명으로서 절반 규모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EBO 추구는 탈대량살상전 특징의 현대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라크 페다인 민병대는 5~8세의 어린아이와 여성, 심지어 임산부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거나 자살폭탄 공격과 같은 비인간적인 전술에 사용했으나, 반면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민간인 피해와 부가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의 군사력 괴멸이 아닌 기능마비를 시키고자 하는 EBO개념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EBO 수행을 위해 미군은 정밀유도 무기(PGM)를 증가하여 사용하였는데, 걸프전 7%, 코소보 35%, 아프간 56%에 비해 이라크전에서는 68%를 사용하였다. 무장도 19,269발 투하 중 9,750발을 PGM으로 사용³⁸⁾하였던 것이다. 희생자를 보면 5월 1일 종전까지 이라크인 총 3,240명 사망, 그중 민간인 1,500명 사망, 전쟁포로는 7,000명에 달한 것으로 이전의 전쟁에 비해 그 수는 대폭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38) Anthony H. Cordesman,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Main Report," 8th eds. (Washington DC.: May 14, 2003), p. 23.

39) 미군이 수행한 전쟁별 적군 사망자수를 비교해 보면, 걸프전시 이라크군은 10만명이 사망했으며, 아프간전에서는 2002. 4. 20일까지 탈레반 전사 1만 1천여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아직 이라크전에서 신뢰할만한 민간인 사상자 집계는 알 수 없다. Anthony H. Cordesman, "The Lessons of the Iraq War : Main Report," 11th eds. (Washington DC. : July 21, 2003), p. 208.

5월 1일 종전까지의 군인 사망자수는 밝혀진 바 미군은 179명, 영국군은 34명으로 연합군 총 213명임.

라. 사전배치전략

이라크전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전략으로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럽스펠드 독트린의 하나인 ‘사전배치전략’(preposition strategy)을 주목한다. 미국의 사전배치전략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전략물자를 세계 곳곳에 전진배치 시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쟁대비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세계 어느 곳으로도 신속히 본토 주둔병력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은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국제외교 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병력전개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된 1991년 걸프전에 비해 이번 이라크전쟁에서는 단 2개월여만에 이라크 침공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쿠웨이트에 전개함으로써 사전배치전략의 실효성을 입증시켰다.⁴⁰⁾ 사전배치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91년 걸프전 이후로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국방예산 삭감과 해외 주둔 미군병력 감소, 그리고 급증하는 중·소규모의 저강도분쟁 및 평화유지작전 등 새로운 안보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재편되는 국제질서체제 하에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미국의 역할증대는 자연적으로 미군의 저강도분쟁 개입을 촉발하게 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미군의 기동성·신속대응 능력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은 위기 대처능력이 뒤떨어지는 전쟁비축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사전배치전략을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발전시키게 되었다.

사전배치전략을 통해 미국은 전투병력의 해외파견과 군수지원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보급물자의 관리·운영을 현실화했다. 특히 사전배치전략을 통해 이라크 전쟁 초반 대두됐던 보급문제를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다.

40) 일부에서는 사전배치전략을 일전의 ‘전쟁비축물자(war reserve)’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평가하고 있지만 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쟁비축물자 개념을 창고에 비유한다면 사전배치전략은 움직이는 물류센터에 비유할 수 있다.

3. 작전 · 전술적 측면

가. 지휘통제

금번 이라크전은 전투 의사결정 순환체계⁴¹⁾의 혁신적 시간단축과 Sensor-to-Shooter 체계의 발달로 긴급표적 타격능력이 대폭 신장된 전쟁이었다. 이라크의 전투의사결정 순환체계는 거의 마비되었으며, 반면 연합군의 전투의사결정체계는 압도적인 첨단 정보자산과 정밀공격 능력에 의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⁴²⁾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합체계(a system of systems)⁴³⁾ 개념이 출현하면서 C⁴I체계,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ISR)체계, 정밀유도무기(Precision Guided Munitions : PGMs)체계의 연동으로 전투력 상승효과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적획득 후 타격까지의 전투의사결정 시간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당시 1주일 소요되던 것이 이라크전쟁에 이르러 1시간 이내로 혁신적인 단축이 이

41) OODA Loop는 Observe(관찰)-Orient(파악)-Decide(결정)-Act(행동)의 약자로 한국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존 보이드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이나 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모델을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는 적보다 OODA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측에 주어지며, 적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한다는 모델이다.

42) 전투 의사결정 소요시간 : 표적획득에서 표적공격 임무를 완료하는 하나의 과정(Sensor-to-Shooter)을 관찰-파악-결정-행동이라는 의사결정 순환체계로 연계하여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Sensor-to-Shooter 개념은 표적획득 ⇨ 지휘 및 통제 ⇨ 정밀 타격 ⇨ 전투피해평가(BDA) ⇨ 재타격의 순환과정을 일컫는다.

이 순환과정은 존 보이드의 OODA Loop(Observe-Orient-Decide-Act=관찰-상황파악-의사결정-행동)의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즉 Sensor-to-Shooter의 과정을 인간이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43) 항공우주력을 바탕으로 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혹은 메타체계(Meta Systems)는 전장식별능력체계(ISR)와 신속한 광역정보전달능력체계(C⁴I=지휘 · 통제 · 통신 · 전산체계), 그리고 정밀기동 및 정밀타격능력체계(PGMs or PF)라는 3개의 체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체계이다. 이들 세 가지 체계가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영근, 『미래전과 군사혁신』(서울 : 연경문화사, 1999), p. 286 참조.

〈표 12〉 시대별 전투 의사결정 사이클 시간 변화 추이

구 분	나폴레옹전쟁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걸프전	이라크전
관찰/연락수단	망원경/전령	전 보	라디오/무선	거의 실시간	실시간
상황판단	몇 주	몇 일	수시간	몇 분	몇 분
의사결정	몇 달	몇 주	몇 일	몇 시간	몇 분
행 동	한 계절	1개월	1주일	1일	1시간 내

루어졌던 것이다.

긴급표적타격(Time Sensitive Strikes) 임무는 신속한 표적화와 재표적화(Inflight and Rapid Targeting and Retargeting)를 통해 체공중인 전력을 활용하여 타격하는 임무로서 연합공중작전센터(CAOC)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정보자산을 이용, 긴급하게 공격이 요구되는 표적자료(data)들에 대해 ‘긴급 표적반’(TST Cell : Time Sensitive Target Cell)을 운영하여 체공중인 전력을 임무 전환(divert)시켜 긴급표적타격임무를 수행⁴⁴⁾하게 했다. 따라서 실시간 전장 상황인식과 통제를 하는 긴급표적타격(Time Sensitive Strikes) 임무를 통해 Sensor-to-Shooter의 시간 단축과 효과를 배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임무계획은 걸프전쟁 당시 4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이라크전쟁에서는 30분이 소요되는 혁신적인 작전운영 결과를 도출시켰다. 즉 TST Cell을 이용한 사례가 50회 있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후세인 은신처를 긴급히 공격한 “Big One Operation”이며, 이 작전에 소요된 OODA 시간은 45분이 소요되었다.⁴⁵⁾

44) Ibid., p. 21.

_____,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Main Report,”(CSIS, April 23, 2003), pp. 125-126.

45) 4월 7일 오후 3시, 바그다드에서 활동중인 미 CIA요원이 후세인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CIA-국방부-중부사에 보고(Sensor-to-Shooter의 1단계 시간 : 33분 소요), B-1폭격기 1대가 2천 파운드 GBU-31(JDAM 2000 pound) 폭탄 4발로 후세인의 은신처를 공중폭격(Sensor-to-Shooter의 2단계 시간 : 12분 소요) 실시.

나. 지상작전

개전 직후 파죽지세의 형세로 일거에 진격함으로써 단기전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라크 방공망 및 공군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연합군의 기동성을 중시한 경량화된 무장과 헬기, 전차 등 기계화부대 위주의 부대편성과 예상을 뛰어넘는 진격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쾌속진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상군의 점령지역 확장 및 쾌속진군에 따라 병참선이 길어지고, 모래폭풍과 이라크 민병대 등에 의한 후방지역 차단과 남부지역에서의 시가전으로 진격이 지연되었고, 아군의 오인사격 및 이라크군과의 교전, 민병대 및 자살폭탄조에 의한 테러 등으로 연합군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작전계획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격에 대비 기습적으로 남하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합군은 작전계획을 변경, 지상군은 전략요충지 및 병참선을 확보하고 전력증강시까지 진격을 유보하고 바그다드 외곽 공화국 수비대에 의한 공격은 공군전력을 이용하여 공습으로 이를 제지하였다. 이라크군의 남진은 연합군에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미·영 연합군은 이점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활용, 주요 전략요충지 및 군사시설에 집중시킨 대규모 공습을 공화국 수비대 등 이라크 주요전력에 집중시켜 지휘통신체제와 전력의 상당부분을 파괴함으로써 이라크군의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중원전력이 도착하기 전인 3월 31일 연합군이 전격적으로 바그다드에 재진격하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격렬한 지상전이 치뤄진 기간으로써,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주전력인 메디나 사단과 바그다드 사단이 격퇴된 시점이다. 연합군은 바그다드 외곽 6km까지 진격하여 ‘사담국제공항’ 등 주요전략요충지 및 도로를 확보, 바그다드 동, 남서, 남동쪽 3개 방면에서 포위압박 강화하면서 마지막 바그다드 시가전 및 함락을 준비하게 되었다.

4월 7일 09:20 바그다드 중심부에 전격 진입하였는데 이라크군의 저항은 산발적,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공화국 수비대 6개 사단중 조직적으로 대항한 사단은 없었다.

4월 9일 바그다드 중심부를 장악함으로서 사실상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게 되었는데, 바그다드에서의 격렬한 시가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500만 시민을 담보로 한 이라크의 시가전 구상은 한낱 꿈으로 끝났던 것이다. 이라크 시민들의 대부분은 연합군을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후세인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연합군의 심리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첨단 정밀무기체계의 가공할 위력 및 선별적인 타격목표 선정으로 여느 전쟁보다 민간인 사망자 수가 적었고 후세인 폭정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항공작전

이라크전은 현대전의 승리 요건이 제공권 확보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전쟁이었다. 또한 조기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쟁이전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라크 공군 무력화를 위해 우선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항공장비 및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전투기 316대를 보유하였으나 경제제재로 인하여 운영 가능한 항공기는 55% 이하로 추정되었으며, 이라크는 현대화된 공중탐색체계, 지휘통제, 정보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공간통제와 경보는 낙후된 지상요격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게다가 이라크의 지휘통제체제는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단위부대의 자율작전 능력과 조종사 개인 판단에 의한 전술임무 수행이 불가능 했다.

연합군의 항공전력 규모와 그 전개 및 배치수준은 다음 <표 13, 14>와 같다.

〈표 13〉 연합군의 항공전력의 수준

구 분	투 입 기 종	투입전력	소 계
공 군	B-1, B-2, B-52, F-117, F-15, F-16, A-10, 토네이도, 재규어, 기타 지원기	900여대	1,400여대
해 군	F-14, FA-18, 해리어	500여대	

〈표 14〉 전개 및 배치수준

구 분	기 지		기 종
	국 가	기 지	
전구 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F-15/16(100여대)
	카타르	알우데이드	F-117
	쿠웨이트	알리 알살람, 알 자비르	F-15/F-16/A-10(100여대)
	예멘	마시라	B-1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리	U-2
	바레인	마나마	F-16
	터키	인시리크	F-15/16
전구 외	미국	본 토	B-1/2/52
	영국	본 토	B-52
	영국령(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B-2/B-52(20여대)

이에 반해 이라크 공군력의 현황은 보잘 것 없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에 비하여 약 50%의 감소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걸프전쟁시 공군전투기는 655대였으나 이라크전쟁시에는 316대로 추정되었으며, 걸프전시 입은 피해상황으로 30대가 피격되고 113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140대가 엄체호 파괴시 동시에 파괴되었다. 또한 140대는 이란으로 도피했으며, 375개의 엄체호가 파괴되었다.

게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비행훈련 기회까지 매우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숙련 조종사는 연간 60~120시간, 대부분의 저등급 조종사는 연간 20시간 이하로서 거의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표 15〉 2002년 이라크 전력 현황(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구 분	수 량	주 기종
폭 격 기	6	Tu-22, H-6D
전투/공격기	130	Mig-23, Mirage F1, Su-20, 40/Su-22, 2/Su-24, 2/Su-25
전 투 기	180	F-7, 40/Mig-21, 50/Mig-23, 12/Mig-25, 50/Mirage F1, 10/Mig-29
정 찰 기	5	Mig-25
급 유 기	2	IL-76
수 송 기	다수	An-2, An-12/24, IL-76
훈 련 기	158	50/L-39, 50/EMB-312
총 계	481대 이상	전투/폭격기 316대

〈표 16〉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훈련제한

- 1991년 4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36°선 이북, 북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 1992년 8월, 시아파 회교도 보호를 위한 32°선 이남, 남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운영
- 1996년 9월, 이라크가 쿠르드족간(민주당/애국연합)의 분쟁에 개입하자 남부 비행금지구역을 북위 33°선으로 확대 설정함
- 1999년 1월, 이라크의 무기사찰 거부 및 방해로 비행금지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바그다드 제외)
- 사막의 여우작전(Desert Fox Operation : 1999. 12. 17~20) 이후 다시 36°선 이북과 33°선 이남으로 비행금지구역을 환원함
- ※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이라크 전투기와 동 구역 내에 배치된 방공무기체계(SAM, AAA)를 공격함(연간 약 50일 정도 공습실시)

또한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60%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감시 임무 수행으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이라크 항공기 감시 및 연합군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대 활동중인 이라크 방공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습을 실시하였다. 1998년 사막의 여우작전(1998. 12. 17~21)으로 이라크의 방공망

이 상당히 파괴되었으며 사막의 여우작전 이후 전쟁발발 직전까지 남·북부 비행금지구역 내의 감시임무는 지속되었으며, 이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이라크 방공망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 공군력은 걸프전 후 미·영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활동공간이 축소되었고, 따라서 24개 작전기지 중 바그다드 주위 8개 작전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활동을 하였다. 1992년과 1993년에 미군기에 의한 1/MIG-25, 1/MIG-29 항공기가 격추된 이후 서방측 전투기와 교전을 회피하였으며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보유 항공기 316여대 중 55%정도만 가동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⁴⁶⁾

〈표 17〉 사막의 여우작전 이후 1999년-2002년 이라크 공군 피해현황

연도	주요 표적	비고
1999년	대공포, SAM 기지, 통신시설, 군 지휘소, 레이더기지	- 1달 평균 10~20회 공습
2000년	대공포, SAM 기지, 군 지휘소	
2001년	대공포, SAM 기지, 군 지휘소, 레이더기지	- 2월 17일 : 연합군은 항공기 24대 동원, 최대규모 공습(바그다드 주변 포함) - 7·8월 : 이라크에서 SAM 발사를 포함, 470여회 대공방어체계 활동 - 9·10월 : 이라크가 미군 무인정찰기 각 1대씩 격추
2002년	대공포, SAM 기지, 군 지휘소, 레이더기지, 바스라 인근 공항	- 미·영 전투기의 이라크 공격 406회 - 9월 5일 : 미·영 전투기 100여대 서부 이라크 방공망 폭격(정밀유도폭탄 25발 사용)

* 사막의 여우작전 이후 미·영 공군은 총 17,000여회 출격하여 이라크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공격함.

46)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방공군은 연합군의 비행금지구역 감시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군으로부터 방공사령부로 독립/창설하여 이라크 전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휘통제 하였으나 연합군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대부분의 방공망이 파괴되었다.

전쟁 단계에 들어서서는 전쟁초기 적의 항공력과 방공망 파괴를 위한 공세제공 임무의 지속 수행으로 이라크 항공기 활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공중 및 우주우세권 확보를 위한 제공작전은 총 5,550초티 수행했는데 이때 이라크 전지역의 비행장 및 방공망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작전결과 전쟁 초기 공격에 참가하였던 조종사들은 이라크 방공군의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의 산발적인 저항을 받았으나 이라크 공군기에 의한 대응은 없었다. 따라서 연합군의 항공력은 제공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라크의 전략표적과 연합지상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상군 지원작전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공중 및 우주우세권 확보를 위해 총 47,600초티 대비 5,550초티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12% 수준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⁷⁾ D+10일(3월 30일)에는 이라크 영공의 제공권을 95% 장악하게 되고 D+19일(4월 8일)에는 이라크 영공의 제공권을 100%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전 초부터 이라크 전지역에 대한 정밀폭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D+3일(3월 20일)에 지상군 진격과 함께 근접항공지원 임무 수행 및 D+10일(3월 30일)부터 공격의 80%를 이라크 지상군 공격 및 연합 지상군 지원 임무에 투입이 가능했다.

한편, 현대전에 있어 항공작전은 한마디로 전략적 마비 달성에 있다. 개전 초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으로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인 후세인과 핵심지휘부 제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이라크의 국가지도체제와 군사 지휘기

47) 주요 전장지역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는 통상 총 초티의 약 25~35% 소요된다.

〈표 18〉 최근 전쟁시 사용된 정밀유도 무기

구 분	걸프전	유고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전쟁기간	43일	78일	50일	43일
총 쏘티	118,700	37,500~38,000	29,000~38,000	47,600
총 공격 쏘티	41,300	10,808~14,006	17,500	17,200
총 투하무장량	265,000발	23,000발	22,000발	28,800발
정밀유도무기량	20,450발	8,050발	12,500발	19,050발
비 율	7~8%	35%	56%	66%

출처 : CSIS, “US Airpower in Recent Regional Conflicts”, “The Instant Lessons of the Iraq War Executive Summary”(2003. 4).

* 전쟁비용 : 걸프전시 610억 달러, 베트남전 4,940억 달러, 한국전 3,030억 달러, 이라크전 256억 달러 승인(물가 상승율 감안시 최저수준), 동아일보 2003. 4. 16.

구를 무력화하여 조기에 전쟁승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전쟁 중에도 이라크의 국가지도체제와 군사지휘기구 및 지휘통제체제에 대한 공중공격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개전초 1,000여개의 기계표적 공격을 시작으로 전쟁중 지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략마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밀공습이 가능한 항공자산과 정밀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였다. 걸프전 이후 이러한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정밀공격 능력의 신장으로 전쟁의 조기종결 및 저비용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항공력에 의한 시가전/게릴라전 수행은 획기적인 것이지만 이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서 우선 저강도분쟁 등과 같은 재래식 소규모분쟁 및 평화유지작전 등에서 시가전 및 게릴라전 양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장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확한 표적획득이 가능한 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인, 유인항공기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 및 표적 획득체계 확충과 인간정보를 활용

하면서 획득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의사결정하여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게릴라전시에는 장기체공 가능하고 적정무장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시가전에서 부수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밀 비살상무기의 개발은 말할 것도 없다. 시가전을 포함한 게릴라전에서의 항공력 운용 방안 및 교리 발전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타격 수단까지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보획득 항공기 및 요원과 타격수단의 합동작전 절차 등으로 말할 수 있다.

※ 바그다드 시가전을 위한 도시전투 공중지원 작전개념 도입 적용

- 시가전을 위한 지상군의 바그다드 외곽 포위, 다수의 공중지휘통제기(AWACS)와 최대 무장탑재 전투기 및 폭격기를 시가지 상공에 24시간 대기
- 적군 활동시 지속적인 공습
- 비폭발성(시멘트) 탄두와 500파운드 레이저유도폭탄도 필요시 투하(인근지역 건물 및 민간인 피해 없이 주거내 방 파괴 가능)

라. 근접항공지원하 도시전 수행 효과

공군의 새로운 시가전 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CAS)과 지상군의 새로운 시가전 전술은 단시간내에 바그다드 함락을 달성한 핵심 요인이었다.

시가전에 대한 전통적 전술은 봉쇄, 전격진격 혹은 대량포격과 같은 것들이었지만, 고정관념을 깬 공군과 지상군의 새로운 시가전술은 바그다드 함락 작전을 단기간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공군은 피아식별의 어려움과 민간인에게 대량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가전에서의 전투기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시가전 CAS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즉 'Airborne 911'(응급구조대) 개념으로 각기 다른 무장을 탑재한 A-10, F-16, F-15를 바그다드 인근 상공에 고도별로 체공

(Stacking-up)시키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장을 탑재한 기종을 선별 투입하여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한편, 감시와 표적획득을 위해 Predator와 Global Hawk 등 무인항공기를 운용하여 실시간 연합공중작전센터에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연합공군작전센터(CAOC)는 공격기 탑재무장을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괴력이 약한 500파운드 정밀유도폭탄과 시멘트 폭탄(dummy Bomb)을 사용하도록 선정했다. 공격기들은 최대 체공연료와 최대한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고도별로 공중대기했으며, 전자전 항공기(EA-6B Prowler)들은 지상의 대공위협에 대한 전자전 제압을 실시했던 것이다.

특히 지상군의 경우 미 육군 3사단장 Buford Blount 소장의 뛰어난 전술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 Buford 소장은 시가전에 탱크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시가전 교리를 뛰어넘어 항공력 지원하에 4월 6일 05시 05분 탱크의 기동성과 장갑성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Hit & Run) 전술과 4월 7일 ‘쿠데타 방식’으로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공군본부, 바트당사, TV방송국 등 주요 거점지역을 확보하는 일명 ‘우뢰, 진격작전’(Thunder Run Operation)을 실시하여 이틀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쾌거를 이룩⁴⁸⁾하였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이 가져다 준 새로운 전술적용 덕분에 바그다드는 단시간에 함락되었다.

특히 무인항공기의 시가전 지원이다. 무인기항공기는 적의 중첩된 방어망 속에서도 조종사 희생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장시간 체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수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적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에 의한 수집자료는 실시간 획득되는 정보로서 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타격체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전시 운용된 무인항공기는 프레데터(Predator) 및 글로벌호크(Global

48) Anthony H. Cordesman, op. cit., pp. 76-77.

Hawk)였다. 특히 전쟁중 15기의 프레데터를 운용하여 100여회 이상 임무를 수행했으며, 4월 23일에는 이라크 남부 레이더 추적 대공포 기지에 대해 헬파이어(Hellfire II) 미사일로 공격하여 파괴시켰던 것이다. 글로벌호크(Global Hawk)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륙하여 전장에 진입한 후 전장상황을 획득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술탄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작전센터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작전센터에서 전술기에게 표적정보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공중공격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 운용은 주 전장지역의 중고도(15,000피트)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제공하여 각종 정보를 획득 후 통제센터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프레데터 무인항공기는 공격 표적을 포착한 후 직접 공격하게 된다. 또한 RC-135 Rivet Joint(전자정보수집 항공기)와 합동작전도 수행하게 되는데, RC-135의 표적 포착 후 프레데터에 정보를 제공하면, 프레데터는 표적지역에 투입되어 표적 확인 후 정확한 좌표를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표적포착 및 선정과 공격 반응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이다.

마. 연합군의 탁월한 심리전⁴⁹⁾ 전개

심리전은 이라크 국민을 지도부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심리전은 이라크 국민을 지휘부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적용됨으로써 전쟁에 수행된 모든 작전, 특히 효과중심의 항공폭격, 민사작전과 공보작전, 시가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략적 수준에서 볼 때 전쟁이전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적인 성명발표와 걸프만에 군사력 전개(deploy-

49) 미 공군교리 2-5.3,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공군 전투발전단 역, 1999. 8. 27), pp. 6-8.

미 공군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통합 심리작전을 수행.

ment)를 통해 후세인과 이라크 국민을 압박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개전 연설에서 이라크 국민을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며, 대항하지 않는 이라크 병사는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이라크 지도부로부터 병사와 국민을 분리시키려 했다. 영토를 단계적으로 점령해 나가는 전통적 전략 대신 핵심부를 중점 공격하면서 수도를 조기 함락시켜 체제를 붕괴시키는 'Inside Out 전략'(마비전략) 개념의 작전을 전개했다.

작전적 심리작전으로서 연합군은 개전초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라크 군과 국민의 전쟁의지를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충격과 공포'(Shock & Awe)⁵⁰⁾라는 작전명으로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공중공격을 감행하였는데, 'Shock & Awe' 대규모 공습은 물리적 파괴에 기반을 둔 심리작전으로 D-day에 144쏘티, D+3day에 2,000쏘티, D+4day에 900쏘티를 실시(모래폭풍으로 인해 계획보다 감소하여 운영)하였으며, D+23일(4. 12)까지 총 36,275쏘티 중 14,050쏘티가 공대지 공격임무였다. 다음날 폭격을 경고하는 전단을 살포 후 실제 폭격을 실시하였으며, 계속되는 폭격경고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이라크 병사들로 하여금 탈영을 유도하게 한 결과 이라크군의 명령체계가 와해되고 사기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특수전기를 이용한 공군의 심리작전으로서 EC-130 Commando Solo/Compass Call 등 특수전기를 이용하여 이라크 TV, Radio를 장악한 후 기만방송⁵¹⁾ 및 선무(宣撫)방송을 실시하고 부대를 이탈해서 투항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TV에 방영하여 이라크군 전의를 저하시켰으며, 이라크전에서 4월 10일까지 4,380만장의⁵²⁾ 전단살포⁵³⁾를 하는 등 이라크 석유기

50) Harlan K. Ullman and James P. Wade, Shock &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NDU Press, 1996). 이 작전의 계획자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충격과 공포는 나가사키 원폭투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51) Kevin Coughlin, "War: It's not just firing guns, By leaflet, TV, Radio and Loudspeaker, US. Wages Information Campaign," <http://www.globalsecurity.com>, 2003. 4. 11.

술자들에게 애국심을 자극하여 유정을 지켜야 전후복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후세인이 지시한 유정과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이라크 TV 방송국 공습, 알 자지라 방송 전파 방해 및 프레스센터 공습 등 물리적 공격으로 심리전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하였다.

전단 살포를 통한 항복 권유 및 마이크를 통해 이라크 남성들은 성불구자라고 방송함으로써(아랍인들의 다혈질적인 성향을 이용) 숨어있던 민병대들이 무기를 들고 시가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후 민간인과 구별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사살 또는 체포하였다.

또한 가상공간을 이용한 심리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연합군은 개전 이전부터 인터넷 전자메일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핵심 고위층에게 망명이나 투항을 권유하는 등의 치밀한 심리전을 수행하였으며 미디어를 통한 심리작전으로서 서방측 언론은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 및 점령지에서의 민사작전 활동을 통한 해방군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였다.

이라크와 연합군은 각각 알 자지라,⁵⁴⁾ CNN 등의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해 치열한 심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전에 동원되었으며, 그 효과 또한 전쟁조기 종결을 달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52) Anthony H. Cordesman,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Main Report," (Washington DC. : CSIS, April 23, 2003), p. 75.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 11일까지 항공기를 이용하여 5천만장 전단살포.

53) Anthony H. Cordesman, op. cit., p. 4.

54) 이데일리, 2003년 4월 10일. 걸프전의 미디어 스타가 CNN이었다면 이라크전에서 돋보인 미디어는 단연 카타르 위성 TV 방송 알자지라(Al-Jazeera)다. 지난 1996년 카타르의 왕족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가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알자지라는 서방 언론이 아닌 아랍의 시각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11 테러 이후 빈 라덴의 녹화테이프를 단독 보도하면서 관심을 모았으며,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미군 포로의 모습을 방영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바. 우수한 공보작전

최초로 종군기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 연합군의 공보작전은 장병 사기진작과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적절히 정보를 유리하게 통제함으로써 전쟁 승리에 기여하였다.

이번 이라크전쟁에서의 공보작전은 「신뢰성」 유지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수행되었으며 장병사기진작과 전쟁수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숨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식 브리핑, 종군기자 프로그램, 전단살포, 선무방송 등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라크전쟁에서 공식적인 미국의 정보공개 창구는 공식 브리핑이었다. 전장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인상을 주면서도 효과적인 정보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연합군은 부시 대통령, 럽스펠드 국방장관, 마이애스 합참의장, 프랭크스 중부사령관, 브룩스 중부사 대변인이 공보를 주로 하였고, 특히 중부사 연합보도본부(Combined Press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함으로써 정보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민사, 심리작전과 유기적으로 협조, 일관성을 유지하되 그 시행방법은 분명히 구별되었다. 이라크전쟁에서 새롭게 채택된 ‘종군기자 프로그램’은 기존 미군의 공보작전에 견주어 볼 때 이번 전쟁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를 야전부대에 직접 배치하여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보안성검토 없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역사상 처음 적용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보를 통해 아군내부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기저하를 막고, 전투의지를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선무방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린치 일병 구출작전, 후세인 동상 넘어뜨리는 장면 등을 방영하여 지지여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이라크의 공보는 실제 공보작전이 아닌 전황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 심리작전으로 활용되었고,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하프 이라크 공보장관을 대변인으로 하여 국영 TV와 알 자지라 TV를 통해 전황을 호도하고 항전의식 고취를 선동하였다. 또한 민간인 피해를 부각시켜 세계적 반전여론의 확대를 시도했다. 후세인의 회의장면, 시내에서의 이라크군 격려 장면, 농부가 헬기를 소총으로 피격시켰다는 장면 등을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방영하여 이라크 국민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유지하게 했다. 사하프 공보장관의 공보는 다소 신뢰성은 떨어졌으나, 그나마 이라크 국민과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유지시킨 큰 효과를 누렸으며, 그의 공보가 아니었으면 전쟁은 더 빨리 종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사. 기 타

첫째, 경제적 군수관리문제다. 민간기술 도입을 통한 군수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경제적 군수관리 및 물자수송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군수물자의 물류 이동시 창고 보관과정을 생략하는 일명 ‘Just-In-Time System’을 도입하여 적용했던 것이다. 미군은 1991년 걸프전 당시 한 번도 뜯지 않은 컨테이너가 전후에도 산더미처럼 쌓였던 교훈을 금번 이라크 군수지원작전에 반영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수송선에 화물을 실을 때 ‘최대가 아닌 최적’의 원칙을 적용했으며, 장비나 인원 수송선박을 시차를 두고 이동시켜 선적 지체를 예방했다. 수송선박에서 차량이나 탱크를 기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에서 직접 차량과 탱크를 몰고 나오도록 하는 장치도 개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화물 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으로 고장난 부품의 위치 파악과 비행기, 차량, 선박들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군수지원체계의 혁신으로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 본토에서 이라크까지 8일 걸리던 물자수송을 금번 이라크전쟁에서는 4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걸프전쟁의 1/5).

둘째, 사전훈련을 통한 모든 가변적 요소에 대비하는 문제이다. 연합군은 2002년 12월 이라크전을 가상으로 'Internal Look 2003'으로 명명된 지휘소 훈련을 중부사령관 주관으로 미·영군의 핵심참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에서 실시하였다. 'Internal Look'은 1991년 걸프전 이후 4회째 실시한 지휘소 훈련으로서 실전을 가정한 세부내용 묘사를 통하여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비함으로써 금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전쟁의 마찰 요소들을 극복하고 융통성 있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실전상황에서 모래폭풍으로 인한 작전제한과 연합군 후방 보급로에 대한 이라크의 게릴라식 공격으로 작전지연이 예상되면서 추가 파병계획 등이 고려될 당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전 지휘소훈련을 통해 모든 가변성에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광대한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항공전역 관리, 대단히 낮은 사고율, 20일간 쉴 새 없는 전투지속능력, 수준 높은 합동 및 연합작전 성과 등은 전쟁 준비와 훈련이 없었다면 달성될 수 없는 가치들인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자산을 이용해 정보기반전과 정보전을 시행할 수 있는 정보작전 체계를 사전에 구축 완료하고, 이라크의 화생방전 수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 후 완벽한 대비 전략을 수립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Gray War)⁵⁵⁾ 수행에 대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라크의 게릴라 전술과 시가전 전술이 연합군의 정보작전체계에 의해 그 능력과 방법이 간파되어 큰 위협이나 저항은 되지 못하였다. 결국 전쟁의 준비와 훈련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연합군의 이라크전쟁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가치는 승리로써 보상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우군간 오인사격/폭격 문제를 들 수 있다. 걸프전쟁 이후 우군간 오인사격/폭격을 막기 위한 미군의 노력은 보다 다양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첨단 정보기반과 정밀유도무기 체계를 보유한

55) 공군본부, 『아프가니스탄전 분석』(공군본부, 2002. 1), p. 38.

연합군이 우군에 대한 오인사격과 민간인을 오폭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토네이도 영국전투기를 포함한 3대의 전투기가 우군의 패트리엇에 의한 오인사격으로 피격되었으며, A-10의 영국 기갑차량 공격, F-16의 패트리엇 포대 폭격, F-15의 쿠르드 민병대 폭격, 러시아 외교관 차량 공격 등 많은 오점을 남겼다. 오인사격/폭격으로 인한 연합군의 사망자 수는 36명에 달하고 있다.⁵⁶⁾

결론적으로 걸프전 이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군 오인사격으로 인한 3대의 전투기 손실과 오인폭격으로 인한 인명손실은 앞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며, 최적의 해결책은 교리와 작전절차, 조직, 진보된 기술 및 하드웨어 개발 및 반복훈련 등의 종합적인 노력에 의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4. 무기체계

이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적은 병력으로 단기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바로 최첨단 무기체계의 우수성이라 볼 수 있으며, 이번 전쟁에 사용된 무기체계들은 걸프전에 사용된 무기체계들에 비해 그 성능이 개량되어 우수하였고, 특히 화력측면과 항공기에 장착한 정밀유도무기 등 신형무기들은 성능이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재래식 폭탄을 자유 투하하였고 미사일도 주로 레이더로 유도함으로써 다소 명중률이 저하되었으나, 이번 전쟁에서는 재래식 폭탄에 위성위치확인체계(GPS) 및 관성항법체계(INS) 등을 장착하여 매우 정밀한 타격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무인기(UAV)는 전술용뿐만 아니라 전략용으로도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쟁에 사용된 각종 무기체계들의 현황은 <표 19>와 같다.

56) 1991년 걸프전에서는 148명의 전투사망자 중 35명이 우군간 오인사격/폭격으로 인한 것이었고, 공군기 4건, 해병대 1건, 미사일(HARM) 3건이었음.

〈표 19〉 이라크전 사용 무기체계 현황

분 류	무 기 체 계
지상무기	M1 MBT / M2 BFV / M109A6 / Challenger / AAVP 7A1 / LAV / M777 LW155
해 상	CV-63 Kitty Hawk / CV-67 John F. Kennedy / CVN-65 Enerprise / DVN-68 Nivitz / CG-47 Ticonderoga / DD-963 Spruance / DDG-51 Arleigh Burke / FFG-7 Oliver Hazard Perry / SSN-688 Los Angeles / LCC-19 Blue Ridge / LHA-1 Tarwa / LHD-1 Wasp / LSD-41 Whidbey Island / LPD-4 Austin / AGF-3 La Salle / AGF-11 Coronado / AOE-1 Sacramento / MCM-1 Avenger
항 공	B-1B / B-2 / B-52 / F-14B / F-15E / F-16 / F/A-18 / F-117 / A-10 / AH-1W / AH-64D / EC-130 / E-2C / E-3 AWACS / E-8 JSTARS / P-3 Orion / KC-130 / EA-6B / SH-60F / HH-60H / RQ-1 Predator / RQ-4 Global Hawk / Dragon Eye / RQ-7 Shadow
유도폭탄 / 미사일	AGM-86C/D CALCM / AGM-142 HAVE NAP / BGM-109 Tomahawk / AGM-154 JSOW / BLU-82 Daisy-Cutter / BLU-118 Thermibaric / CBU-87 CEM / CBU-103 WCMD / CBU-10/12 Paveway II / GBU-16 Paveway II / GBU-27 Have Void / GBU-28/37 Bunker-Buster / JDAM (합동직격탄) / GAM(GBU-36B, 37B) / MK 81/82/83/84 GP / HPM/EMP-Bomb(전자폭탄) / MOAB(초대형 유도폭탄) / Javelin / BGM-71/M-200 TOW / BAT

이번 이라크전의 무기체계에 대해 두드러진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가. 정밀 유도무기의 사용

금번 이라크전쟁에 적용된 무기체계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밀항공력(Precision Air Power)이며, 역사상 정밀유도무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장차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밀도와 파괴력의 다양성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된 침단무기가 대량동원 되

었다는 것이다.⁵⁷⁾ 과거 전쟁과는 달리 이라크전쟁에 사용된 모든 전투기들과 심지어 수송기와 같은 플랫폼에도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하여 공격하였다는 것과 정보자산들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혁신이 점차 효과를 기반으로 한 전략개념을 적용하며, 탈대량살상과 저비용전쟁의 양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라크전쟁에 등장한 JDAM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며, GPS 위성체계를 이용하여 악기상이나 야간에도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무장이었다. 특히 악기상에 의해 레이저가 확산될 위험이 있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선 JDAM이 필요하며, JDAM은 가격면에서 1대당 약 3천 6백만원(3만 달러)으로 크루즈 미사일의 1/50 가격에 불과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정밀성은 3m 오차 정도이다. 또한 JDAM은 지상 및 공중에서 표적좌표 입력이 가능하며, 특수군과 항공자산에 의한 정확한 표적 좌표만 획득되고 전파된다면 매우 정밀한 공격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전장환경에 부합된 무기체계 적용

이라크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이라크 전장환경에 부합되는 최첨단 무기체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GPS와 INS로 유도하는 지하 병커 파괴용 GBU-37(Bunker Buster)은 6m 두께의 벽을 관통할 수 있어 후세인이 숨어있는 요새화된 대통령궁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초대형 공중폭파 폭탄(MOAB : Massive Ordnance Air Blast)은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초강력 대형폭탄으로서 지상병력, 산재된 전차 파괴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2GW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폭탄(E-Bomb)은 연합군이 바그다드 공격시 사용한 무기로 도시 전체를 정전시킨 후 적외선 장비로 무장한 미·영 특수전 부대를 헬기로 은밀히 투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대탄도탄 능력이 향상된 패트리엇

57) 걸프전 7%, 코소보 35%, 아프간 56%, 이라크전 66% 사용되었으며, 무장 19,050발 투하 중 9,750발을 PGM으로 사용했다.

는 쿠웨이트로 날아오는 이라크 지대지 유도탄 11발중 8발을 성공적으로 파괴시켜 걸프전이후 탄도탄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증명시켰다.

산재한 지역표적에 대해 효과적 성능을 발휘한 확산탄(CBU-105, CBU-87)이 사용되었는데, 이라크전쟁에서 확산탄은 주로 사막지역에 산재된 전차들에 대한 지역폭격(Area Bombing)에 사용되었으며, CBU-105의 경우 모폭탄(dispense)은 관성항법체계(INS)에 의해 유도되고 산재된 표적범위에 따라 폭발고도(HOB : Hight of Burst)가 선정되고, 40개의 자폭탄은 자체 적외선(IR) 센서에 의해 초당 4,848m의 속도로 표적을 향해 순간적으로 발사되어 11.5cm(4.5 인치)의 강철판을 관통한다.

다. 무인기(UAV)의 활약과 Sensor-with- Shooter의 등장

기존의 Sensor 역할을 수행하던 Predator는 AGM-114(헬파이어 미사일)를 장착하고 이라크군의 전차와 방공포 부대를 제압하는 공격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라크전쟁에서 무인정찰기(Unmanned Aerial Vehicle)는 주로 인공위성과 U-2, RC-135 등이 포착한 표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육·해·공·해병에서 공히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인기를 운용하였다.⁵⁸⁾



[그림 1] Predator



[그림 2] Global Hawk

58) 이라크전쟁에 사용된 UAV는 Global Hawk, Predator(공군 자산), Hunter, Shadow(육군 자산), Pointer(육·해병 자산), Pioneer(육·해·해병 자산), Dragon Eye(해병 자산) 등임.

〈표 20〉 이라크전 사용 무인기 현황

용 도		기 종	성 능	수 행 임 무
전 략 용		Predator	• 작전거리 400NM • 고도 25,000ft • 450lbs탑재 • 24시간 체공	• 100회 이상 출격 • Helifire 12발 이상 발사
		Global Hawk		• 작전기지 : United Arab Emirates • 실시간 표적 식별/타격
		Pointer	• 구형 단거리 작전 무인기	• 전술정보 수집
전 술 용	육 군	Hunter		• 5군단에서 운용
	해병대	Dragon Eyes	• 300-500ft에서 운용 • 비디오 링크 거리 5km	• 무인기 20대와 지상스테이션 10개 전개 • 대규모 이라크 육군부대가 야간에 바그다드에서 외곽으로 이동 확인, 실시간 Marine Combat Operations Center에 제공하여 항공기로 정밀 타격을 실시토록 함(약 80대 차량 파괴)

이와 아울러 F-15와 같은 우수한 Sensor를 장착한 전투기들은 표적획득 후 직접 공격까지 수행하는 Scud Hunter의 임무를 수행했다.

라. GPS 위성체계의 활용

GPS를 포함한 항공우주무기체계는 이라크전쟁의 모든 작전에 필수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밀공격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미래전에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쟁에서 위성들은 전장정찰, 감시, 통신, DATA 송신 등의 정보기반전의 핵심장비였다. 이중 GPS 위성체계에 의한 표

적 및 위치정보는 악기상이나 악시정 상황에서 공·지·해 전투전력과 지휘 통제요원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로 작용하였다. 특히 JDAM과 같이 항공력과 GPS 위성체계의 결합은 야간작전, 악기상, 악시정 상황하에서 정밀공격 능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라크는 전쟁 발발 이전에 코소보전을 교훈으로 미국의 정보작전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미군이 가진 정보작전체계에 대한 취약성을 발견한 후세인은 공세적인 정보작전으로 러시아제 GPS Jammer 6대를 도입하여, 미·영 연합군의 정밀공격 방해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는 GPS Jammer를 GPS로 역추적하여 모두 파괴시킬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GPS 위성체계는 효용성이 뛰어난 반면 취약성도 보유하고 있는데 GPS 위성체계에 대한 교란이나 간섭(jamming)이 있을 경우 전쟁수행체계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GPS 위성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장차 전쟁에서 GPS 위성체계는 모든 전장상황과 무기체계 운영에 있어 기반역할을 수행할 것이 자명하다.

IV. 교 혼

1. 포스트 이라크 국제질서

가. 전후 이라크 안정화 추진: 군정체제 개편 및 전후 복구 추진

전쟁직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내 최고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이라크 군정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인적 교체를 단행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괄하는 최고 행정관에 「브레머」 전 국무부 대테러 대사를 임명(5. 7)하였다. 한편, 이라크 중부지역 행정책임자인 「보다인」 전 예멘대사(5. 11)에 이어 「가너」

재건·인도지원(ORHA)국장의 귀국 등 군정체제의 대대적 인사개편도 추진(5. 11 CNN)하였다.

또한 이라크 집권 바트당을 해체하고 군재건 및 기반시설 복구 등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군사 개편작업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전쟁승리 후 펜타곤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최근 그는 “전쟁은 이겼지만, 이라크 재건은 엉망”이라는 비난을 안팎에서 받고 있다. 지난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 이라크에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전기·수도 등 시민생활의 기본 편의시설들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무엇보다 치안불안이 큰 문제였다. 미 공병단 대변인은 “이라크 유전시설 피해의 70%가 민간인들의 약탈 탓이며, 그 피해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군 병사들은 바그다드의 으스스한 골목들은 아예 순찰코스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그래서 약탈은 그치지 않고, 시민들은 저마다 자위 차원에서 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 1만명의 이라크 경찰이 현업으로 복귀해 미군을 돕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제이 가너 예비역 중장에 이어 이라크의 새 행정책임자로 임명된 폴 브레머는 “약탈자들을 사살할 수도 있다”는 강경방침을 발표했지만, 치안 불안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미 의회와 언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실패할 위험에 부딪혔다”는 우려 섞인 분석들마저 나오고 있다.⁵⁹⁾ 폴 울포위츠 국방 부장관도 “미군은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서 환영받을 것”이란 견해를 펴왔다. 그래서 소규모 미군 주둔병력으로도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군의 경량화를 지론으로 삼아온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울포위츠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럼즈펠드는 이라크전쟁 뒤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던 계획을 일단 물리고, 이라크에 1기갑사단 1만 5,000명의 병력과 수백 명의 헌병(MP)

59)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소말리아·보스니아·코소보·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평화유지활동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무시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붕괴 뒤 일어날 무질서·약탈 가능성을 아주 낮춰 보았다고 지적했다(5. 19, WP).

들을 바그다드에 추가로 파병했다. 5월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은 16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쟁지역들에 비추어 보면, 후세인 정권붕괴로 생겨난 힘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16만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1995년 Dayton 평화협정을 끝으로 보스니아 내전이 막을 내린 뒤 나토군은 6만명을 배치했고(보스니아 인구 4백만), 1999년 코소보전쟁 뒤 4만명의 나토군이 진입했다(코소보 인구 2백만), 그런데 이라크는 보스니아, 코소보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2천 3백만), 지역도 훨씬 넓다(대략 한반도의 2배 면적). 현재 일부 유럽국가들이 치안유지 병력을 파견할 움직임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펜타곤 지휘부가 포스트 후세인(post-Hussein) 상황을 쉽게 판단한 데는 이라크 망명자들로 구성된 이라크 국민평의회(INC)를 비롯한 일부 정보원들의 잘못된 정보를 과신한 것이 제기되고 있다. 9·11 테러 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펜타곤 안에 특수작전부(Office of Special Plans, OSP)를 설치, 아브람 솔스키를 수장으로 한 8~9명의 정책보좌관 및 분석가들이 이라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왔다. 이 과정에서 INC 지도자인 아흐메드 찰라비는 OSP의 주요정보 제공자로 떠올랐다.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은폐설, 9·11 테러 주범인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연계설, “미군이 이라크로 진격해 들어가면 사람들은 장미를 던지며 환영할 것”이란 낙관적인 판단도 INC의 찰라비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의 주요명분으로 내걸었던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껏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INC 지도자 찰라비는 펜타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사담 후세인을 대신할 새로운 이라크 지도자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⁶⁰⁾ 이라크 주둔 미군을

60) 펜타곤과는 대조적으로 콜린 파월 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 조지 테넷 국장의 미 중앙정보는 찰라비를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고 있다.

보는 이라크 현지인들의 눈길은 복합적이다. 우선 24년 동안 이라크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풀려나게 된 점을 반긴다. 아울러 이라크 민족주의적인 감정이나 이슬람세계의 뿌리깊은 반 이스라엘 정서상(친 이스라엘 국가인) 미국의 군대를 무턱대고 반기지도 않는다. 특히 최근 ‘후세인’ 추종세력·아랍전사·테러조직 등이 이라크내에서 일련의 무차별 테러로 미군이 아니라 민간인이 계속 희생되고 있다.⁶¹⁾

시아파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미군 점령과 ‘친미 꼭두각시 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미(反美)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미군이 언제까지 이라크에 머물 것인가도 관심사항이다. 부시 미 행정부는 바그다드 함락 직후 “빠른 시일 안에 이라크인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5월 중순들어 그 방침을 바꾸었다.

현재로선 짧아야 1년, 길게는 2년 또는 그 이상 미군이 이라크에 머물며 치안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국민선거(총선 및 대선)가 치러질 때까지 이라크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이 주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행정 책임자 폴 브레머의 파트너로서, 이라크에 파견된 영국 최고위 민간인 존 소위스 특사도 “영·미 연합군이 총선 실시 이전에는 이라크 정부에 권력을 넘길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라크 망명세력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물론 미 국민 행정책임자인 폴 브레머의 영향력 아래— 과도정부를 구성하더라도, 말 그대로 과도정부일 뿐이다.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수받는 것은 아니다. 영·미 연합군은 이라크 국정운영을 사실상 통제할 것이다. 이라크

61) 2003. 10. 27일에는 바그다드에 있는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보건부청사,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연쇄폭탄테러로 34명이 희생되는 등 2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03. 10. 29일까지 終戰(5. 1)이래 각종 테러로 215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과도정부는 이라크 헌법을 초안하고, 이에 따라 제헌국회를 구성하며 대통령(또는 수상)을 어떤 형식으로 뽑을 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선거가 치러지려면, 1~2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비용을 기본적으로 이라크 석유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가재건비용을 메우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410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캐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라크 석유시설이 낡은 데다 전란으로 일부 파괴되어 유엔의 경제제재(석유판매량 제한)가 풀린다해도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럴 경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라크 사람들은 석유판매이익이 국가재건을 위해 제대로 쓰일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 아흐메드 찰라비 INC의장을 비롯한 이라크 새 지도자들이 미국과 영국의 석유재벌들과 손잡고 각기 제 이익만 챙기지 않을까 걱정한다. 찰라비는 “석유 민영화가 이라크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⁶²⁾

나. 향후 전망

(1) 미국 중심의 세계·지역구도 지속

1990년대의 탈냉전 시대 이후 유엔은 국제적인 분쟁조정자 및 평화수호자로서의 기능을 점점 확산시켜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유엔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유엔차원에서 국제적 규범이나 법규를 어긴 국가들에 대해 집단적 강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가 있고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여타 강대국들의 반발과 국가이익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공조관계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유엔을 주도해야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유엔에 대한 효용성을 점차 잃어가고

62) 모두 합쳐 1,12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 유전들은 지난 1979년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잡은 직후 국유화되었다.

있는 실정이다.

향후 유엔의 역할은 분쟁의 조정이나 평화조성(Peace Enforcement) 보다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의의 장(場)이나 평화유지(Peace Keeping) 수준에 국한될 전망이다. 각종 국제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대테러 문제 등에 있어 미국 주도의 해결관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유엔은 이에 대한 국가간 사전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⁶³⁾ 이미 분쟁이 해결된 지역의 평화유지나 전후복구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명목적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세계적 안보 및 평화문제를 유엔의 틀을 벗어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을 추구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적 설전이 발생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전략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강대국들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중심적 국가전략은 앞으로도 사안별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미국 주도의 석유시장 질서재편과 중동질서의 재편현상도 북한 핵문제의 긴 해결과정과 더불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구도를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라크 신 정부 등 친서방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 중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직 불안정한 연합관계이며 관계악화시에는 아국의 장기 에너지 도입선 변화 검토가 요망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주도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3) 2003. 10. 16일에 있었던 UN안보리의 대이라크 결의안도 미국 주도하 추진된 결의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구도에 따른 후속조치는 유관 관련부서가 소위원회 구성과 NSC 담당부서 창설 등을 통해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2) 대테러/대확산정책의 강력추진과 군사혁신 가속화

금번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더욱 강경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새로이 제시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상황의 조기종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력사용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의 강도가 증가함과 더불어, 대응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NPR에서 지목한 7개국(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테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추진은 미국의 군사혁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한 군사혁신(RMA)을 가속화하였는데 2001년 QDR 등 각종 국방문서를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유사시 신속한 해외전력투사, 압도적 전력을 통한 조기 상황 장악 등을 목적으로 한 RMA를 추진했다.

이라크전은 이러한 RMA에 대한 일종의 실험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다. 즉 초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대량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영토점령전 보다는 부대침투 및 공중폭격을 이용한 전쟁지도 체제를 무력화했으며 C⁴ISR 등 압도적 우위의 정보자산을 활용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집중적으로 구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라크전은 10여년 전의 걸프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걸프전시 사용한

폭탄의 7%만이 초정밀유도무기였던 데 비하여 이라크전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걸프전시 68만명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명의 지상군 병력을 활용하고도 절반 가량의 기한 내에 전쟁목적을 달성해버린 것이다.⁶⁴⁾ 지상군 진격속도에 있어서도 이라크전은 걸프전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미국의 RMA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전략 변화 역시 보다 두드러질 것이다.

분쟁이후의 사후 대응이나 관리보다는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는 정치·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적 무력시위를 병행할 것이다. 필요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나 집단에 대한 선별 예방타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분쟁 발생시 기동 타격군을 활용한 조기 전장 장악이 필요하다.

(3) 여타국가들과의 관계

미국은 반테러전쟁, 더 구체적으로는 이라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도에 따라 확실히 다른 외교적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은 이라크전 지지를 밀어붙였던 동유럽 7개국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이들 동유럽국가는 일찌감치 일어서 미국편에 섰다”며 “대통령은 영예롭고 당당하게 이 나라들에 감사하다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가입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동유럽국가 중에서도 폴란드는 미국과 가장 밀접한 유대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폴란드는 미국, 영국과 함께 이라크 분할 통치에 참여하게 됐으며 미국으로부터 48대의 F-16기를 구입할 때 특별조건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발표한 바도 있다. 전후 처리과

64) 걸프전시 43일만에 승전, 이라크전은 21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것이다.

정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쟁지지에 앞장섰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도 만나 미국이 스페인의 요구에 따라 바스크족 분리단체인 ETA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도 있다.

반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했던 유럽국가들과는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재확인하여 3자간 패권적 해양세력의 연합을 형성시켜가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반미정책으로 국내지지도를 높였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중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외교공세를 자제함으로써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실리의 교를 견지하였다. 이들 반전국가들은 정치, 경제, 안보질서 모두의 측면에서 미·영의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전후처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의 예를 따라 유엔이 순차적으로 권력 이양작업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미국의 새 이라크 결의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석유판매대금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은 “석유 수입금 배분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대금관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 역시 후세인 정권의 교체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후세인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 이란-이라크 전쟁 시 제공받은 전쟁물자비용에 대해 70~80억 달러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100~200억 달러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러 부채상환 태도에 따라 러시아의 행동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카스피해 연안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미국계 및 유럽기업들과 공동투자에 주력해 온 만큼 러시아의 경제이익과 미국 등 서방 경제이익 간에는 공통부분이 존재한다.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의 석유메이저 루크오일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수익성 높은 이라크의 웨스턴 쿠르나-2 유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웨스턴 쿠르나-2 유전의 확인매장량이 10억t으로 수르구트와 사모틀로르 등 러시아 2개 대형 유전의 잔여 매장량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루크오일은 과거 1997년 이라크 에너지부 및 다른 2개 러시아 회사와 함께 웨스턴 쿠르나-2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루크오일이 2020년까지 40억 달러 가량을 투자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라크 정부는 작년 12월 이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이라크 정부는 당시 루크오일이 이라크의 망명 반체제단체들과 전후 시나리오를 놓고 협상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계약취소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크오일측은 웨스턴 쿠르나-2 유전의 독점개발권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영의 입장과 반전 3국의 입장은 이슈마다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향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반전 연합을 약화시키고, 미·영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으며, 독자노선을 추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차이와 미국의 향후 패권사업 구상은 비단 국가들 간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뿐 아니라, 냉전기와 탈냉전 초기의 국제기구의 전반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전쟁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분열과 유럽국가들 간의 의견대립은 향후 UN은 물론 EU와 NATO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전 지원을 둘러싼 유럽국가간 의견대립은 공동 안보외교정책의 추진가능성은 물론 경제공동체의 발전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NATO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추세력이었던 서유럽 NATO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동유럽의 신생가입국들에 대한 발언권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NATO를 운영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전 연합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 신 헌법을 통해 NATO와 견줄 군사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⁶⁵⁾ 독일은 NATO와의 대결을 염려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유럽방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EU의 군사·안보 정책 강화추진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에 의해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사태 등이 해결됨에 따라 유럽지역내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향후 역내 분쟁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2004년 회원국 확대를 앞두고 그간 경제분야 통합추진에 비해 미진했던 안보·방위 분야의 공동정책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려는 의도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EU는 프·독·벨기에 등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국가들의 주도로 독자 방위체제 구축, 군사협력 및 안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영·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과 중동구 신규 가입국들이 NATO와의 경쟁·기능 중복 등을 들어 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유럽내 영향력 축소를 우려, EU의 독자적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NATO 중심의 유럽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미·유럽간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전후처리과정은 중동지역질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수파들은 전후 처리과정에서 이라크 정권교체와 민주화가 시리아와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인접국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화 도미노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동의 사회적 근대화와 테러리즘 척결, 미국의 역내 이익 확대, 이스라엘의 안보확보가 미국의 중동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들이다. 우선, 시리아는 이라크와 같은 바트당 형제국이며 이란과는 반 이스라

65) EU내 이라크전 반대국들이었던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지난 2003. 4. 29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의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NATO와는 별도로 작전지휘가 가능한 유럽군 통합사령부 설치를 제의. EU 특별정상회의(10. 16~17, 브뤼셀)에서 ‘독자적 군사능력 확보’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엘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시리아의 바트당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획기적 노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중동질서의 최고 난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시리아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안보확보를 의미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평화 과정의 순향을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통적 역내 우방이던 사우디도 미국과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다. 9·11 테러 용의자 대부분이 사우디 출신자들이라는 점과, 사우디가 미국주도 이라크전을 적극 지지하지 않다는 점이 그 같은 해석의 배경이다. 이집트 역시 전통적 친미 우방이지만 민주화와 인권문제로 인해 상당기간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 반면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을 비롯한 걸프국가들은 미국이 새로 판을 짜는 지역안보체제에서 최혜국 대우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기간 연합군에 기지를 제공하거나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들이다. 결국 미국이 민주화된 이라크를 발진기지로 삼아 역내 국가들을 새로운 질서에 급속히 편입시킬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2. 군사작전측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제거와 테러 지원국에 대한 응징, 차단을 위하여 이라크를 공격했다. 미국의 전쟁수행전략은 유엔의 부동의와 국제적인 반전여론을 의식해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기 속결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이라크는 반전단체 등을 이용한 인간방패전술 및 민간인 대량피해 발생 유도로 국제적인 반전여론을 조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전을 유도함으로써 후세인 체제 유지가 전략이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이 수행한 군사전략 및 작전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라크전은 한마디로 “합동전장 운영개념에 따른 각 군간의 조화로운 협업에 첨단무기체계를 이용한 효과중심의 작전을 바탕으로 전투력의 극대화를 구현하여 전략적 중심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료한 초단기 모델로서 미래전 양상을 현실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었다.

특히 미국이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군사력운용의 유연성 발휘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 운용의 유연성과 통합작전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전이었다. 이는 바로 미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쟁(Network-Centric Warfare : NCW)을 구현한 것으로서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운용의 유연성이었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공격의 개전일을 변경시켰는데, 한국 시간으로 2003년 3월 22일 오전 3시로 설정하여 우선 대규모의 공중공격을 실시하고(A-day) 9시간 후에 지상군부대가 이라크 영내로 침공을 개시(G-day)하게 된다. 특수작전부대는 22일 오전 3시부터 이라크 영내로 침투를 개시하여 항공 및 지상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색출하여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 작전계획의 실시는 3월 18일에 국방장관이 발령했는데 특수부대가 침투를 개시한 2시간 반 후에 CIA 장관이 후세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각료들이 바그다드의 모 장소에 집합한다는 정보를 알려왔기 때문에 급히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그 장소에 대하여 F-117 스텔스기 2대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발에 의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단숨에 후세인 정권의 간부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로써 전쟁은 거의 싸우지 않고도 결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적의 지휘관이나 지도층을 노리는 전술은 이미 많이 구사되어 왔음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놀라야 할 일은 30만이 넘는 대병력을 일시 정지시켜 별도의 작전을 급히 수립하여 실시하고, 게다가 다음날 원래의 작전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부대의 작전을 예정보다 1일 앞당겨 항공공

격과 동시에 개시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전력의 일단 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재개하게 한다는 것은 종래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전방의 공격부대 행동을 정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후속부대와 방대한 근무지원부대까지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체계가 그야말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것을 연합군은 거뜬히 해냈던 것이다. 지극히 높은 유연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바그다드 공격에 투입된 부대도 이 공격명령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것이었다. 2대의 F-117A 공격기는 합동항공작전센터의 명령에 따라 30분내에 작전계획을 입안하고, 이륙하여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는데까지 4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명령수령 후 2시간에 이륙, 2시간 비행).

4척의 함정과 2척의 잠수함에서 함께 40발이 발사된 토마호크도 표적변경명령에서 발사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Bloc-III형의 토마호크는 표적의 프로그램 변경을 30분만에 할 수 있다고 하나 발사통제용 컴퓨터에 표적관련 정보와 비행경로에 관한 제원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별도로 입수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토마호크에 표적지시정보를 재입력하는 것을 1시간 정도로 실시했다면 경탄할 일이라 하겠다.

개전이 1일 앞당겨지고 지상전이 전면적인 항공작전과 동시에 개시되었는데 당초 예정으로는 우선 1일동안 전면적인 항공공격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상부대 침공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라크가 남부 유전지대의 시설을 파괴할 위험이 고려됨으로써 지상부대의 투입을 앞당겼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전의 유연성은 4월 7일, 바그다드 시내의 모 레스토랑에 후세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2명의 아들과 이라크 정부의 주요 요인이 회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대기중이던 B-1B 폭격기에 공격명령이 하달되어 12분 후에 4발의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여 레스토랑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비록 후세인과 간부들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아 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지만, 간부의 집합을 탐지한 정보기관의 능력과 그것을 실전부대에 통보하여 항공공격을 실시케 한 지휘·통제·통신(C³) 능력은 종래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닐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작전의 교훈에 따라 미 공군은 이라크 공격개시 이후, 이라크 상공에 상시 1대의 B-1B를 공중대기 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상목표 공격에 최단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적국의 정부요인과 군 지휘부를 겨냥하여 실시되는 항공공격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으로 호칭되어 이번 이라크 공격에서 갑자기 보도매체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 개념은 요컨대 적 정부의 주요요인, 군 지휘부, 적이 전쟁수행상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설과 군사력에 대하여 일거에 막대한 규모의 공격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전쟁수행의 기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군이 ‘충격과 공포’전략을 항상 기본으로 삼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회만 포착되면 그 효과를 이용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나. 첨단기술의 효과적 활용

우선, 미국은 대이라크전에서 전쟁기획의 우수성, 적응성, 융통성을 바탕으로 최초 북부전선에 의존하였던 작전계획을 신속히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항공력과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이라크의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이라크군의 기동을 제한하며, 이동중인 대부분의 부대를 파괴하고, 근접항공지원하에서 도시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해군력은 항공기지에 대한 대체기지로서 항모와 미사일을 제공하였고, 장비와 군수물자에 대한 해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쿠웨이트 항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1MEF가 이라크군의 집결지와 도시를 회피하여 동쪽 축선을 따라 신속하게 바그다드에 접근함으로써 이라크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를 재배치하는 등의 시간과 이점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라크 군의 주요부대 대

부분은 서쪽 축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속도(Speed), 동시성(Simultaneity), 무기체계간 동조성(Synchronicity), 합동성(Jointness), 연합전력(Combined Arms)을 활용하여 미 육군이 지향하고 있는 신속결정적작전을 수행하였는데, 걸프전에서는 모든 항공쏘티 가운데 약 55%를 타격 쏘티에 할당하였으나 이라크전에서는 75%를 할당하였다. 따라서 지상작전과 항공작전을 동시에 개시하여 작전효과를 최대화시켰던 것이다.

첨단 C⁴ISR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전장상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쟁수행을 수행하였는데, 미국과 연합군은 약 80대의 항공기를 ISR 임무에 할당하여 1,000쏘티 이상의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우주자산은 합동작전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체계, 전장감시 및 정밀 타격 등을 위한 핵심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미국은 약 50대 이상의 위성을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 우주 IR센서는 약 26개의 이라크 미사일 발사, 1,493개의 고정표적, 186개의 이동표적 등을 탐지하였다. 특히 GPS 위성은 피아의 위치를 식별하고 무기를 표적에 유도하기 위한 핵심자산으로 중요성이 증대되었는데, 걸프전시 최초로 GPS가 도입되었을 경우 육군은 1개 중대 또는 180명당 GPS 수신기 1대를 보유하였으나 이라크전에서는 적어도 1개 분대 9명당 1대의 수신기를 보유하여(해병대는 1개 소대당 수신기 1대 보유) 10만개 이상의 수신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미군과 연합군의 높은 훈련 및 전투준비 태세는 손실률을 낮추고 20일 이상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은 직업군인으로 대부분 전투경험 보유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사실 미 항모에서 타격임무를 수행하였던 조종사의 약 70%가 전투경험을 보유하고 대규모 예비군(reserve forces)이 신속 전개하여 합동전역에서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시 훈련,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⁶⁶⁾

또한 첨단 기술능력에 의해 야간 및 악천후시에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미군과 연합군은 심각한 모래 및 먼지 폭풍하에서도 작전을 수행했는데, 전쟁기간 동안 약 70%는 구름이 있었고 약 30%만 맑은 날씨가 유지되었지만, 전쟁 기간동안 전 항공쏘티 가운데 단지 4%만 기상조건으로 취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65%가 심한 모래폭풍이 불었던 3일간만 발생했을 뿐이다.

또 하나는 휴식과 부대 재편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군수지원 능력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미군은 걸프전쟁의 군수작전에서 많은 문제점(교훈)을 습득하여 12년을 경과하면서 그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모든 전투수행부대가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시에 필요한 장소에 안전·확실하게 수송하기 위한 이른바 ‘전술인터넷에 의한 군수혁명’(RML : Revolution in Military Logistic)을 발전시켰다.⁶⁷⁾ 이는 ‘Just in time’ 보급방식을 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그 요점은 장비, 보급품의 정보(내용물, 수량, 수령처 등)를 비롯 그 수가 많더라도 모조리 바코드(bar code)를 붙여서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군은 무선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사용하여 군수현황을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신속하게 소요에 응하였다. 다만 중대단위에서 RFID를 보유하지 않아, 트럭 부족으로 장거리, 적시적소의 군수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RFID 체계는 독특한 식별코드를 가진 소형 무선 송신기로서 이를 수송물자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물자의 위치, 내용 등을 on-line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걸프전시와 같이 군수물자를 적재

66) 미국은 이라크전에 예비군 총 423,988명 가운데 40,400명을 동원하였다(육군예비군 10,686명, 육군 주방위군 8,866명, 해군 예비군 2,056명, 해병대 예비군 9,501명, 공군 예비군 2,084명, 공군 주방위군 7,207명).

67) 시가다·도시유키, “이라크 전쟁의 교훈(전쟁의 목적과 수단)”, 합참 군사연구 2003-10호, p. 13.

하지 않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군은 전쟁 개시 이전에 중장비와 물자를 해상수송하고, 공중수송을 통해 병력과 민감한 물품을 신속하게 수송함으로써 전술적 기습 수행이 가능하였다. 이때 C-130 120대와 C-17 7대를 전역에 배치하고 많은 경수송기를 운용하였다.

다. 전력운용 극대화 위한 연합/합동작전

이라크전 승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이 보여준 ‘합동성’(jointness) 구현이었다. 이는 어떤 특정한 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이 각 군의 특징에 맞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전쟁지휘부는 이들의 역할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전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먼저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적의 주요 전략타격목표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적의 준비상황을 파악해 전쟁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해군력은 특수부대로부터 제공받은 이라크의 주요 전략목표 정보를 이용하여 장거리 정밀 투사임무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지를 제공하면서 공군력의 항공 전력투사 및 지상군의 전투수행에 필요한 모든 병참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공군력은 적의 주요 지휘체계 및 방공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제공권을 장악했다. 또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통해 지상군의 교두보 및 진격작전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거의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해 적의 병력 유인과 공지작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적의 전략심장부를 공격 및 장악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이끌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 육군과 공군간에 근접항공지원을 놓고 다투는 일도 있었으나 이라크 전쟁에서는 육군의 전방 항공통제관(FAC)이 해병대의 공격기를 유도하여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육군부대를 해병대의 AH-1W 공격헬기가 지원하는 등의 부대의 통합적 운용이 실현되었다. 작전초기의 모래폭풍 등의 악천후 하에서도 공군의 A-10 공격기는 차질없이 지상공격 지원

을 실시하였다.

작전 전반기의 바스라 공격에는 미 해병대와 영 육군·해병대의 합동작전이 실시되었다.

미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를 영 육군의 주력전차가 지원하는 상황도 있었다. 미 해군의 E-2C 조기경보기는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근접항공지원은 육군과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실시되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인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대량의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이 크게 부각되기는 했으나, 사용된 각종 장비는 기본적으로 1991년의 걸프전쟁의 것과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전군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통합하는가를 생각하는 점에서 종래와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과 ISR 기술 등은 거의 실시간 작전능력을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 즉 복합체계는 실시간 전장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타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걸프전시 수일 또는 수시간에서 이라크전시는 수시간 또는 수분으로 센서-타격체계 사이클을 단축시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군, 해병대, 연합군(영국)간 디지털 수준의 차이로 합동작전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육군작전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바스라 지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은밀표적에 대한 식별은 UAVs, 전자정보 장비, 특수부대원 활용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전장피해평가(Battle Damage Assessment)는 능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장되었거나 불확실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전쟁손실 가운데 우군 오인사격에 의한 손실비중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피아식별 능력(IFF)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오인사격의 대표사례는 F-16CJ에 대해 PATRIOT 미사일 사격이었다(3. 24). 이라크전시 미

군은 총 사망 128명 가운데 적어도 12명이(4.20 기준), 그리고 걸프전시에는 147명 전투 사망자 가운데 35명이 우군 오인사격으로 사망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군간 오인사격/폭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방과학기술연구소(DARPA)의 우군살상방지 식별장치(AFID) 개발 등의 기술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군에 의한 사고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훈련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화력지원협조선(FSCL), 사격협조선(CFL), 경계구역, 공지합동 및 연합절차, 방공 교전규칙 등의 통제수단을 표준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미 지상군의 피아식별 체계(IFF System)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방부는 17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장전투식별 체계(BCIS : the Battlefield Combat Identification System)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미 육군 최정예 디지털 사단인 제4사단만이 이를 시험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라. 항공작전 교훈

연합군은 압도적인 공군전력 보유와 이라크 방공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로 거의 완벽한 공중지배권을 확보하였으나, 미래전에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작전을 수행 가능할 것인가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항공기와 이라크 지대공 방공체제는 연합군 공중작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못했으며 연합군의 바그다드 지상작전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방해하지도 못했다. 연합군 항공기의 손실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고정익 항공기 2대(A-10, F-15E), 아파치 헬기(AH-64) 2대만 손실됐을 뿐이다. 그러나 첨단 지대공 방공체계(러시아 S-300, Patriot 등)의 도입은 첨단 항공력의 이점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센서체계(ISR)와 표적식별 능력 향상은 표적을 선택적으로 정밀타격함으로써 민간인과 부차적인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에 기초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공격보다 이라크군의 지도부, 통신시설, 연료공급 시설을 주로 폭격하였으며, 이라크군의 대량파괴보다는 기동과 작전수행을 마비시키기 위한 선택적 폭격을 실시했다. 정밀도의 향상은 표적 및 탄약 선택의 방법을 변화시켰으며, 레이저 및 GPS 유도 체계의 사용은 보다 소형폭탄으로 부차적인 피해없이 표적에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2,000lbs 대신에 500lbs 폭탄으로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표적타격 및 항공기 탑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1회 항공작전시 보다 많은 다수의 표적 타격 가능)되었다.

거의 모든 항공기는 정밀무기를 탑재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정밀무기의 사용비율을 증대함으로써 효과에 기초한 공격을 가능토록 했다. 걸프전시는 F-117, F-111, F-15E와 같은 소수의 항공기만 첨단 정밀타격임무를 수행했으나 미군은 걸프전과 비교시 정밀무기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미군은 정밀무기를 걸프전시 약 5.8%, 이라크전시 68%(19,269발) 사용했고, 레이저 유도무기는 걸프전시 4,086발을, 이라크전시 8,618발을 사용하였으며, 이라크전에서는 JDAM 6,542발을 새로이 사용(이라크전시 사용한 기타 유도무기는 EGBU-27 98발, AGM-88 HARM 408발)하였다. 걸프전시 Hellfire 3,065발을, 이라크전시 562발을 사용하였고, 걸프전시 Mavericks 5,296발을 이라크전시 918발을 사용,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증대로 레이저와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가격이 저렴화된 것을 반영했다.

또한, 미군은 비행중에 신속하게 임무를 전환하고 표적을 재지정하여 적시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라크 지도부가 숨을 수 있는 성역(Sanctuary)을 제거했다. 약 156회에 걸쳐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지도부, 미사일 및 WMD 표적에 대한 신속한 타격을 위해 임무를 재지정했으며 이동표적 타격을 위해 체공중인 항공기에 686회의 임무를 부여(남부 243회, 서부 271회, 북부 172회)했다.

한편, 첨단의 다양한 공중타격무기 체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은 표적에 대해 효과적인 정밀타격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F-117 스텔스기는 순항미사일과 함께 개전 초기 방공체계, 핵심 지휘시설, 통신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스텔스기는 공중급유기의 부족으로 개전초 3일동안 방호가 잘되어 있는 표적에만 집중사용(이중 개전일 야간에 임무의 2/3를 사용)되었다. 이때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 153발, 함정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802발(BGM-109 TLAM Romahawk)을 발사하였고 함정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의 실패율은 2%로 걸프전시 5%(288발 사용)에 비해 낮아졌다. 토마호크의 정밀도와 사정거리가 향상되었으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의 증량화 및 표적 침투능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한점이 존재하고 있다.

도시전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을 도시전 특성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사용하여 적시적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했는데, 특히 UAVs는 장기체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500lbs 소형 폭탄은 민간 지역의 핵심표적을 공격 가능토록 하였으며, A-10 공격헬기와 Harrier 및 AH-1W기는 저고도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GBU-27, GBU-28과 같은 Bunker Buster 폭탄은 지하시설 파괴에 효과적이었다.

공중원정군(Air Expeditionary Forces)⁶⁸⁾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고, 해군 항공전력과 통합되어 공중공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폭격기의 전술거리 및 탑재중량 향상에 따라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증대시켰는데 B-1, B-2, B-52 폭격기는 스텔스 침투 능력, 1회 작전시 다수의 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해 가치를 입증받았다.⁶⁹⁾ 최초로 전

68) 공군은 항공전력을 10개 공중원정군으로 구성하여 유지하며, 전역에서 90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라크전에는 4개의 공중원정군과 기타 4개의 공중원정군 일부 전력을 전개하였다.

69) B-2 폭격기는 2,000파운드 JDAM을 16개 또는 유도폭탄을 70,500파운드까지 탑재 가능하며, B-1B 폭격기는 24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 전쟁시 총 쏘티의 2%를 운용하였으나 상당부분의 JDAM을 투하(LA타임지 4. 27, B-1을 일일 6~7쏘티를 운용하였고 총 2,100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투 투입된 항모탑재 F/A-18EF Super Hornet는 F/A-18C/D와 비교시 임무 범위를 41%(작전반경 369mile → 520mile로 신장), 전투지속능력을 51%(탐재능력을 5,523파운드 → 9,000파운드) 향상시켰다. 연합군은 10종 이상의 무인기를 활용하였으며 무인기는 장시간 전장에 제공하면서 표적을 실시간 정밀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주요 수단으로 가치가 증대되었다.

A-10기는 바그다드 도시전투뿐만 아니라 지상부대의 교통로를 보장하기 위한 근접지원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A-10기는 모래폭풍하에서도 작전을 수행했고, 고도 2,000~3,000ft에서 기총소사를 실시하여 지상작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A-10기는 적의 사격에 의해 피격을 받았으며 9대는 손상을 입고 기지로 복귀하였으나 이동용 미사일에 피격된 1대는 손실되었다.

성능이 향상된 A-64 롱보우 아파치 헬기는 지상군과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저고도 작전에 따른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아파치 헬기가 이라크 탱크부대에 접근하기 이전 소구경 무기 등에 의해 공격을 받음으로써 작전에 제한을 받았는데, 아파치 헬기 1대가 소화기에 의해 격추되고 약 30대가 소화기에 피격되었다.

해리어기는 전 작전 기간중 미 해병대를 근접항공지원하여 작전 효용성을 증명했는데, 상륙항모에 탑재한 해리어기 76대 가운데 60대를 전역에 투입하였으며, 전투기간동안 2,000소티 3,400시간 항공지원작전을 실시했다. 적 방공무기 제압(SEAD :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은 걸프전 이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방공체제가 생존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전자전 등을 수행했다. 개전초 이라크는 약 210기의 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150대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군은 항공우세 확보를 위해 2,374쏘티를 계획하여 1,441쏘티를 실시하였고, 408발의 HARM(High Speed Anti-Radiation Missiles)을 발사하였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표적 탐지 및 피·아식

별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페트리어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발사하였던 12발의 Al-Samoud 2와 Ababil 100 미사일 가운데 8~9발을 요격(결프전시는 이스라엘에 발사하였던 39발의 스킨드중 1발만 요격 성공)하였다. 이는 이라크 국경지역에 포대(미사일 발사시 2~3분내 요격거리, 결프전시는 10~12분 소요)를 설치하여 미사일 발사를 조기경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우주자산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지상군 작전 교훈

M-1A1탱크는 이라크군이 교전범위 이내 접근을 억제하였고 탱크의 방호력은 장비 및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효용성을 증명하였으나 대탱크 첨단 유도무기에 대한 취약성은 남아 있다. 이라크군은 대탱크 첨단 유도무기를 미보유하였으며 구형 탱크전력만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M-1A1탱크는 최대 교전거리가 3,000m이나 이라크의 T-72탱크는 2,500m이며 사격통제 장치 등을 미장착하였다.

장거리 지상포는 공중 정밀무기와 함께 주요 타격전력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MLRS/ATACMS는 양호한 기상조건하에서 뿐만 아니라 야간, 모래폭풍기간 동안에도 주요 화력수단으로 운용된다. 해병대의 155mm 곡사포는 15마일 이상의 유효 사거리를 갖고 있고, 컴퓨터로 표적을 추적하여 50갤런 통 크기의 표적을 맞출 수 있으며, 30분에 400발을 발사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지상부대가 포병과 협조하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및 통제 체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수부대는 합동전장에서 과거와는 달리 핵심적인 전투부대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프랭크스 사령관은 아프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전에서도 특수부대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 약 9,000~10,000명을 투입하였는데, 특수부대의 1개 팀은 12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특수부대 작전을 위해 AC-130 Gunship 8대, HC-130s 8대, EC-130s 8대, MH-47s 14대, MH-53s

31대, MH-6s 7대, MH-60s 18대를 운용했다. 특수부대는 각 지역에서 새로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북부지역-쿠르드족 전사와 함께 임무 수행, 서부지역-공중공격을 위한 표적을 탐지 및 식별/미사일과 WMD를 수색/이라크 시설을 보호하며, 걸프지역-이라크 유정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특수부대원의 개인용 송수신기 또는 'Blue trackers'는 전장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지상부대와 협조하며, 상위제대의 작전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전은 넓은 지역을 점령하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권력의 중심부와 핵심시설을 장악하는데 중점을 둔 새로운 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의 효용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미군은 ISR자산을 활용한 전장 지식에 의해 적의 지형에 익숙한 이점을 극복하고,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장갑차량에 의한 도시초계를 실시하였다. 바그다드 도시전은 공화국수비대의 응집된 방어가 미비하여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나시리아와 힐라에서는 조직적 저항으로 인해 새로운 도시전 수행방식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만약 적이 강력한 도시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도시전 수행방식이 유효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연합군의 전력투사 능력과 전투능력의 부족, 그리고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연합작전시 연합국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기가 곤란하였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 지상군은 전투지속 능력/현대기술/준비태세 및 훈련수준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원정부대로서 역할수행 및 미군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였다.

바. 해군·해병대 작전 교훈

해군 항모전력은 순항미사일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상 공군기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적 자산임을 입증했는데, 미 항모는 최초로 F/A-18E/F Super Hornet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였고, 대규모 레이저 및 GPS 유도 폭탄을

탑재하여 전장에 활용토록 했다. 항모 항공기와 지상기지 항공기, 그리고 지상군과의 합동성 수준은 걸프전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화에 따른 효과가 컸기 때문이었다. 1개 주요 지역전장에 항모 5척의 전개를 요구한 사실은 장차 보다 많은 항공기를 탑재하고 높은 쏘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항모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해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협동적 교전능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등은 합동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함정발사 순항미사일의 대량 사용은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비용대 효과가 있으며 치명성과 공격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과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탄약함(arsenal ship)의 소요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라크는 기뢰와 자살용 보트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기뢰전과 함정보호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해병대는 바다로부터 이격된 원거리에 위치한 원정부대로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Post-상륙작전, Post-연안부대의 새로운 능력을 제시하였다. 합동전장에서 해병대의 역할은 중기갑전(Heavy armored warfare)을 위해 훈련하고, 장비하며,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전은 해병대가 연안전(Littoral warfare)과 전통적인 지상전 임무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발전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 대 WMD작전 교훈

연합군은 적에 대한 압도적인 지식의 이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는데, 미군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이상 동안 이라크를 연구하고 표적을 확인했다. 1991년 이후 'Desert Fox'(1998), 'No Fly Zones'(1998-2003) 작전을 위해 감시·정찰 및 타격작전을 지속 수행했으며, 연합군은 WMD 개발의 증거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WMD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미·영이 이라크의 WMD 개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였거나 아직 능력

이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사찰팀은 5월 중순까지 19개 주요 의혹시설을 방문하였고, 68개 주요 시설 가운데 45개를 조사하였으나 WMD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WMD 관련 정보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WMD 공격에 대한 방어와 대응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미·영이 위협을 과장하였다는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WMD 탐지 장비는 화생위협을 신속·정확하게 경고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잘못된 경고를 발하였고, 보호장구는 어지럼증과 작전수행을 방해하는 등 개선요구 사항이 다수 있었다. 미국은 WMD 탐색을 위한 전반적인 장비와 훈련수준이 제한되었으며, WMD를 다루는 정치적 측면도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였다. 많은 부대들은 의심장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였고, 발견하였던 무기, 장비, 시설들을 적합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전후 미국이 파견하였던 팀은 다양한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성과 언어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미국 팀은 국제적인 지원과 업저버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 정치, 외교, 심리전 교훈

미·영은 이라크군이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항복을 촉진토록 하기 위한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라크의 라디오와 TV를 잠재우지 못하였고 개전초기 이라크 국민의 대정부 지원의지를 오판하기도 했다. 미군은 심리전 수행을 위해 방송, 전단살포, 뇌물 공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EC-130E Commando Solo 58쏘티, 라디오 방송 306시간 및 TV 방송 304시간을 실시하였는데, EC-130H가 이라크 통신을 재밍하기 위해 125쏘티를 수행하였다. 심리전팀은 108종의 라디오 메시지와 81종의 전단을 준비하여 3,200만장의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158회의 쏘티 비행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이라크 공보장관은 아랍과 서구 미디어를 이용하여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정권이 붕괴하는 당일까지 전세계에 이라크의 주요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서구의 대중적 스타로 부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라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지원과 환영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미국이 실패한 것은 1991년 이라크 대중봉기에 대한 지원실패, UN 금수조치하에 받았던 이라크 국민의 고통이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의 정치적 설득, 이-팔 분쟁과 관련하여 이라크와 아랍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 신제국주의 추구하고 같은 지역내 음모이론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 등이다.

미국은 미 국민들에게 최근 전쟁이 합동작전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미군이 걸프 및 아랍지역에 주둔이유 등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는 등 오랫동안 대중외교에 실패하였다.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에서는 주로 항공작전만 부각시킨 반면에 이라크전에서는 지상작전을 부각하는 등 전반적인 합동작전 내용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미흡하였다. 걸프전 이후 장기간 동안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유지를 묵인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걸프전 이후 종전 합의는 후세인이 헬기 등을 동원 대중봉기(1990-1991)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인정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 과정의 결렬에 대한 책임 및 9.11 테러의 책임문제와 관련 미국이 Anti-아랍, Anti-이슬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아랍 세계가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 연합군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요구에 직면함으로써 차후 약소국이 아닌 WMD를 보유한 강력한 집단에 대응 시 문제점 직면이 예상된다.

3.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어떤 국가들보다 군사적으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경쟁국들과 견주는 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도 고대

로마제국, 20세기의 나치 독일보다 강력하다. 영국의 막강 해군력에 맞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뒤늦게 해군 전함(battle ship)들을 건설하던 1890년대의 미국도 아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은 결국 국방예산에서 나온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넘는 액수다.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가 많은 15개 국가들의 총 국방예산보다 많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 회원국의 국방예산을 합해봤자, 미 국방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 빼면 나토는 있으나마나”라는 자조론이 나올 정도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꺾고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s)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 1998년에는 이른 바 「럼즈펠드 보고서」(Rumsfeld Report)를 통해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했었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그는 지난 4월 하순 김정일 축출 시나리오가 담긴 메모를 고위관리들 사이에 돌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펜타곤의 공식입장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견(私見)임을 밝히기 했다. 그렇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겠다는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부국방장관, 존 볼튼 국무차관보(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를 비롯한 미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the hawkish)들의 기본 인식은 “북한에 경수로를 짓는 대신 핵개발 동결을 합의했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북한이 어긴 만큼 또다시 대화나 협상으로 북한에게 끌려 다녀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비롯한 ‘악의 축’ 국가들은 이라크 전쟁에서의 교훈을 제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란 사담 후세인처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거부하면, 곧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란 의미

를 가리킨다. 아울러 미 강경파들은 반미 국가들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 무기 개발을 고집할 경우, 이라크에 이어 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미노(domino)효과를 은근히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온건파 관리들과 일부 미 정치학자들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악의 축’ 국가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교훈을 받았다면, 그것은 미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교훈과는 다른 것이 되리라 걱정한다. 그것은 곧 핵무기 보유확산(nuclear proliferation)쪽이다. 미국의 예방전쟁 논리에 따라 공격하기에 앞서 핵무기를 갖추어야 전쟁억제력(deterrence)을 갖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핵무기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부 반미국가들이 핵무기 보유에 힘을 쏟을 경우,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른바 ‘핵무기 도미노’이론이다.

지난날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막연한 망상 아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소수의 일본 극우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핑계로 일본 핵무장화를 주창해 왔다.

현재까지 부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접근이다. 북한 지도부에게 “핵무기를 개발해 봤자, 득보다는 실이 많다. 핵무기를 포기할 때만이 북한에게 살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물론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 카드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의도는 우선 ‘협상용’으로서 정권유지 위협, 중·러의 중재, 경제·식량난 등 한계에 직면한 나머지 정치·경제적 실익을 위해 장기 협상전략을 구사하려는 차원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보존을 위한 실제 ‘핵보유 전략’으로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운용에 대한 효과적 대응 또는 억제수단, 핵무장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와 대남 군사력 우위 유지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카드는 그 이유가 어떻든 결국 ‘체제생존’이 최종 목표

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거꾸러지고 독재자가 사라진 순간 그동안 철저히 숨죽이고 있던 이라크 국민들이 거리도 뛰쳐나와 연일 환호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지난 10월에만 해도 이라크 국민들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대해 100% 찬성투표로 '신뢰'를 표시했었다. 사담후세인의 공포와 폭압의 독재권력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곤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의 대조적인 모습은 북한 김정일과 북한 주민들의 모습으로 대입해보면 매우 흡사하리라. 이번 이라크전에서 김정일이 받은 충격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로서는 핵포기와 개혁·개방으로의 길이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지속을 통해 국제적 고립과 위협으로 인해 한 순간에 건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가 몰려오기 전에 서서히 흡수하여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⁷⁰⁾ 같은 허구적인 미래의 관념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현실인 '국익'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과 붕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라크전의 승리는 제공권을 확보, 가공할 만한 대규모 공습에 의한 '충격과 공포작전'으로 적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70)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2월 12일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유엔의 대응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핵문제를 민족내부 문제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으로 체계적인 전투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신형 공격헬기와 탱크, 전차 등으로 무장한 지상군 전력의 군사적 우위와 군사적 혁신을 통한 기동성을 보유하여, 적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전술구사에 기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전은 미래전의 모습을 한층 더 실감있게 보여주는 전쟁으로서 향후 우리의 군구조와 전력증강의 방향을 예시해 준다.

특히 금번전쟁의 특징으로서 개전 초기 세계 주요언론들은 전쟁에서 사용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해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관심이 높았으나 실제로는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상당수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재래식 무기가 IT기술, 즉 첨단 C⁴ISR과 결합되면서 네트워크화 되어 그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전에서 검증되어 온 무기체계를 더 효율화된 형태로 변모시켜 사용함으로써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고가인 최첨단 무기체계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술개념도 발전하여 과거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후에 지상군이 기동하던 전술에서 정밀유도무기의 운용 및 근접항공지원과 동시에 지상군의 기동이 이루어졌다. 즉, 육·해·공군 모두가 적시적소에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제히 작전을 감행하는 동시성을 보여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합동성’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육·해·공군이 단순히 서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의존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각기 자군 중심의 전술에서만 갇혀 있고 심지어 이를 타군에게 확대 내지는 기껏해야 협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왜 ‘럼스펠드 독트린’ 같은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자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패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소멸시키려는 패권정책에 있어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 패권체제에 도전하려는 테러세력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독재정권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테러세력에게 제공하는 제3세계 국가 역시 미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의 전투, 또한 어느 나라들의 어느 연합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테러세력의 말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및 반확산과 테러와의 연계를 구실로 타국에 거침없이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는 일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질서는 하나의 super power 와 그 힘을 다 합쳐도 도저히 미국을 당할 수 없는 몇 개의 great power로 구성된 Uni-polar System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통한 정의화 작업은 향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⁷¹⁾

미국은 WMD개발 중단을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였으나 무장해제는 핑계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전은 처음부터 WMD해체보다는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시의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과 북한관,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북한의 무장해제보다 궁극적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의 선택 가능성에 더 한층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라크 내부의 각 정파, 반전국가들, UN 등 국제기구 등의 견제에 부딪혀 애초의 전쟁목적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하여 북한에 대한 전후처리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두개의 전장에서의 동시전투도 버거운 일이지만, 두개의 승전 터에서 동시 전후처리도 만만치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핵문제 처리와 북한 핵개발 지속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심 핵시설 공격 위협 또는 공

71) 1999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GNP는 세계전체의 26.5%를 점하고 있다. 2위인 일본의 두배가 넘을 뿐더러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를 벌렸다. 특히 군사비에서 미국은 세계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나머지 6대강국의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많다.

격을 통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한국이 확실한 대안제시가 불가능하면 미국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인터넷 자료

- 미 국방성 : <http://www.dod.gov/sites/i.html#iraq>.
<http://www.defenselink.mil>.
- 미 합 참 : <http://www.dtic.mil/jcs>.
- 미 중부사 : <http://www.centcom.mil/CENTCOMNews/Transcripts/htm>.
- 미 육 군 : <http://www.army.mil/operations/oif/index.html>.
- 미 해 군 : <http://www.navy.mil>.
- 미 공 군 : <http://www.af.mil/opscenter>.
<http://www.af.mil/news/opscenter/swa-ops.shtml>.
- 미 해병대 : <http://www.usmc.mil>.
- CIA : <http://www.cia.gov>.
- Terrorism FAQs
- The War on Terrorism
- Geographical Information
- FBI : <http://www.fbi.gov>.
- War on Terrorism
- Most Wanted Terrorism
- CSIS : <http://www.csis.org>.

- http://www.csis.org/features/iraq_instantlessons.pdf.
Cordesman, Anthony H.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Main Report," 11th eds. Washington DC. : CSIS, July 14, 2003.
- http://www.csis.org/features/iraq_instantlessons-exec.pdf.
Cordesman, Anthony H. "Instant Lessons of Iraq War : Executive Summary," 11th eds. Washington DC. : CSIS, July 14, 2003.
- Global Security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iraqi-freedom.htm>.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iraq.thm>.
 - http://www.cnn.com/SPECIALS/2003/iraq/war_tracker/index.html.
- 경향일보, 이라크전쟁 특집, <http://www.khan.co.kr/news/iraq.html>.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iraq>.
- 매일경제, 이라크전쟁 뉴스속보, <http://www.mk.co.kr>.
- 문화일보, 이라크전쟁 카운트다운 특집,
<http://www.munhwa.co.kr/spelst.html?secode=876>
- 연합뉴스, 이라크전 특집,
<http://www.yonhapnews.net/services/2400000000.html>.
- 이데일리, 2003.4.10, <http://www.edaily.co.kr>.
- 야후코리아, 이라크전쟁 특집,
<http://kr.fullcoverage.yahoo.com/focis/iraq-war>.
- 조선일보, 이라크전쟁 특집,
<http://www.chosun.com/feature/2003/internatio/iraqwarl/index.html>.
- 중앙일보, 이라크전쟁 특집,
<http://www.joins.com/features/2003/internatio/iraqwarl>.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section.html>.
- 한국일보, 이라크전쟁 특집,
<http://www.hankooki.com/Newsportal/iraq-war/iraq-war.htm>.
- KBS, 미 · 이라크전 특집, <http://worldnet.kbs.co.kr/event/war/index.html>.
- MBC, <http://newasearch.imbc.com/vss-bin/vss-SR/MBC-News>.

- SBS, 미국 대 이라크 전쟁, <http://find.sbs.co.kr/search.html>.
- ABC NEWS, <http://abcnews.go.com/section/world/dailynews/iraqIndex.html>.
- BBC NEWS, <http://news.bbc.co.uk/1/shared/spl/hi/middle-east>.
- CBS NEWS, <http://www.cbsnews.com/sections/iraq/main500257.shtml>.
- CNN NEWS, <http://www.cnn.com/SPECIALS/2003/news.iraq/index.html>.
- Federation American Scientists, <http://www.fas.org>.
- Guardian NEWS, <http://www.guardian.co.uk/Iraq/0,2759,423009,00.html>.
-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pages/world/middleeast/index.html>.

2. 일반자료

- 공군본부, 「이라크전쟁 : 항공작전을 중심으로 분석」(2003. 6).
- 공군작전사령부, 「세계항공발사미사일」(1997. 4).
- 국군정보사령부, “이라크 자유작전 일일상황” 상황일지, 2003. 3~4.
_____, 「이라크전 핸드북」(추가자료)(2003. 3).
_____, 「이라크전 교훈자료집」(2003. 5).
- 국방 정보본부, 일일 ‘중요정보 보고’(2003).
- 김재두외 1명, 「미국의 대이라크 확전 : 카스피해와 에너지 안보」, 서울 : 국방연구원(2002).
- 문광건의 외 1명, 「이라크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의 승인분석」, 서울 : 국방연구원(2003. 6).
- 심경옥,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카스피해 자원과 국제 역학구도,” 서울 : KIDA(2002. 11).
- 전재성, 「미·이라크전의 전후처리 과정 분석」, 서울 : 세종연구소(2003. 6).
- 한국국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2003 이라크전쟁-이라크전 작전사항”.
- 합참 전략기획본부, 중부사 연락장교 상황보고자료(2003. 3~7).
- 해군대학, 「이라크 자유작전 대해부」(2003. 8).
- Ullnan, Harlan K. and Wade, James P., 「Shock & Awe : Achieving Rapid Dominance」, NDU Press, 1996.

<부 록>

1. 부시 개전 성명 : 美 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CNN. 3. 20)

<한글>

현 시간, 미군 및 연합군은 이라크 정부의 무장해제, 이라크 국민의 해방, 그리고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초기단계에 있다. 본인의 명령에 따라 연합군 병력들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몇몇 목표물들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 이는 광범위하고 일치된 작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35개 이상의 국가들이 해군 및 공군기지의 사용허가, 첩보 및 군수의 지원, 전투병력의 파병 등의 조치를 통해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합의 모든 국가들은 책임을 지고 공동방어의 명예를 나누기로 선택했다.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미군 병력들에게 말한다. 불안정한 세계의 평화와 억압된 이라크 국민들의 희망이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당신들과 대처하는 적들은 당신들의 능력과 용기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해방하는 국민들은 미군의 명예롭고 품위있는 정신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분쟁에서 교전수칙 또는 도덕의 법칙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적과 직면하고 있다. '후세인' 대통령은 민간지역에 병력 및 장비들을 배치시켜 무고한 성인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이라크 병력들의 방패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국민들에 대한 최종적인 잔학행위이다.

본인은 전 세계의 미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기를 희망한다. 연합군은 무고한 민간인들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對이라크전을 위한 군사작전은 캘리포니아州만큼이나 거대한 국가의 황량한 지형 위에서 실시될 것이다. 이라크 지형에서의 작전은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연장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이라크 국민들이 통일되고 안정적이며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 문명, 종교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이라크로 향한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야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라크의 통제권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를 희망할 뿐이다. 본인은 미군들의 가족들이 파병된 미군들의 무사한 귀환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랑하는 이들 및 무고한 자들의 보호를 기원하며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당신들의 희생에 대해 美 국민들은 감

사하고 있다. 당신들은 미군 병력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복귀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주저하면서 이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확실하다. 미국 및 우방국들의 국민들은 대량살상무기들로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의 정권에 굴복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육·해·공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병대를 동원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향후 우리들의 거리에서 소방대원들, 경찰들, 그리고 의사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기 위함이다. 분쟁이 시작된 현재, 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정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작전이 미봉책이 아닐 것이며, 승리 외엔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미국 및 세계에 대한 위협은 극복될 것이다. 우리는 유사시에 평화를 위한 임무를 지속할 것이며, 평화를 방어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국과 미국을 방어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길 원한다.

<영문>

My fellow citizens, at this hour,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On my orders, coalition forces have begun striking selected targets of military importance to undermine Saddam Hussein's ability to wage war. These are opening stages of what will be a broad and concerted campaign. More than 35 countries are giving crucial support—from the use of naval and air bases, to help with intelligence and logistics, to the deployment of combat units. Every nation in this coalition has chosen to bear the duty and share the honor of serving in our common defense.

To all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now in the Middle East, the peace of a troubled world and the hopes of an oppressed people now depend on you. That trust is well placed.

The enemies you confront will come to know your skill and bravery. The people you liberate will witness the honorable and decent spirit of the American military. In this conflict, America faces an enemy who has no regard for

conventions of war or rules of morality. Saddam Hussein has placed Iraqi troops and equipment in civilian areas, attempting to use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as shields for his own military—a final atrocity against his people.

I want Americans and all the world to know that coalition forces will make every effort to spare innocent civilians from harm. A campaign on the harsh terrain of a nation as large as California could be longer and more difficult than some predict. And helping Iraqis achieve a united, stable and free country will require our sustained commitment.

We come to Iraq with respect for its citizens, for their great civilization and for the religious faiths they practice. We have no ambition in Iraq, except to remove a threat and restore control of that country to its own people.

I know that the families of our military are praying that all those who serve will return safely and soon. Millions of Americans are praying with you for the safety of your loved ones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For your sacrifice you have the gratitude and respect of the American people. And you can know that our forces will be coming home as soon as their work is done.

Our nation enters this conflict reluctantly—yet, our purpose is sur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will not live at the mercy of an outlaw regime that threatens the peace with weapons of mass murder. We will meet that threat now, with our Army, Air Force, Navy, Coast Guard and Marines, so that we do not have to meet it later with armies of fire fighters and police and doctors on the streets of our cities.

Now that conflict has come, the only way to limit its duration is to apply decisive force. And I assure you, this will not be a campaign of half measures, and we will accept no outcome but victory.

My fellow citizens, the dangers to our country and the world will be overcome. We will pass through this time of peril and carry on the work of peace. We will defend our freedom. We will bring freedom to others and we will prevail.

May God bless our country and all who defend her.

2. 후세인 성전 독려 성명(CNN. 3. 20)

美 정권에 투항한 15명의 이라크 병력들은 비겁한 병력들이다. 이라크와 같은 약소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은 비겁하며, 이는 이슬람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을 지원한 인물들과 추종자들은 이라크와 인권에 반하는 비겁한 만행을 자행했다. 이는 추가적인 만행들이 뒤따를 것을 예고한다. 모든 이라크 국민들과 이라크, 이슬람,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전한다. 모든 선인들은 우리의 조국과 신성한 가치관들을 방어하기 위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국민과 그들의 정직한 가족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나날들은 우리가 천명한 바와 같이, 그리고 알라신이 계획한 바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만행은 고귀한 이라크 국민들의 선한 행적으로 알라신에 기록될 것이다. 알라신은 이라크 국민들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다. 인권과 알라신의 적인 이교도들은 좌절될 것이다. 모든 이라크 국민들은 승리할 것이다. 알라신의 의지대로 이라크 국민들의 적은 실패할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이여, 검을 들고 부산을 떨고 있는 적들을 무찔러라. 부당함이 사라지고 지도력이 발휘되는 시점까지 비와 천둥번개가 사라지는 날까지 진격하라. 모든 악과 맞설 새로운 동이 틀 때까지 싸워라.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계속 발사하라. 검을 들어라. 용감하지 않은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알라신의 의지에 따라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행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라. 세계의 악과 싸우는 친애하는 동지들이여, 당신들에게 평화의 있기를 기원한다. 당신들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세계에 선포한 평화를 향한 당신들의 솔직한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을 목격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늘, 이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자행했다. 우리는 이라크 사령부의 이름과 미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국민들, 이라크군의 역사, 문명, 그리고 이름을 걸고 우리의 적들이 시오니즘주의 범죄자들에 의해 추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적들은 무엄하고 악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는 승리할 것이며, 이라크와 함께 우리의 국가와 인류는 승리할 것이다. 미국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시온주의자들은 모든 악한 범죄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손해 볼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는 승리할 것이다. 알라신은 위대하다. 알라신은 위대하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은 영원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라크의 정신이 영원할 것을 기원한다. 지하드와 팔레스타인 또한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3. 국면별 주요 상황일지

9·11 테러부터 ‘부시’의 ‘악의축’ 발언 이후 이라크 종전까지

◦ 2001

- 09월 11일－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 공격 발생
- 11월 20일－폴 월포워츠 美 국방부 장관, 이라크로 대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 11월 26일－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사용 가능성 경고

◦ 2002년

- 01월 29일－부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축’이라고 호칭하고 이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선언
- 02월 06일－‘파월’ 美 국무장관은 이라크에 ‘정권교체’가 필요하며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발언
- 03월 19일－‘체니’ 부통령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확대, 이라크를 포함시키는 계획에 대한 아랍지도자들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중동 11개국을 순방.
아랍 지도자들 대부분은 후세인 제거를 위한 이라크 공격에 반대
- 06월 01일－‘부시’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테러범들이나 그들을 돕는 정부들에 대한 선제공격 선언
- 06월 24일－‘체니’ 부통령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대한 관심을 “미국 및 우방의 가장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증가하는 위협”이라고 표현
- 07월 12일－이라크 반체제·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후세인 축출을 위한 군사위원회 결성
- 07월 31일－상원 외교위원회 이라크 청문회 개시
- 08월 22일－‘부시’ 대통령, “미국인들은 나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정권교체는 전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발언
- 08월 26일－‘체니’ 부통령, 미국이 후세인 제거를 위한 행동을 지연할 경우 곤혹스러운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 09월 07일－‘부시’ 대통령, ‘블레어’ 영국총리와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회담.
‘블레어’ 총리는 “행동하지 않는 정책은 우리가 책임있게 수행할 정책이 아니다”고 발언

- 09월 08일-‘체니’ 부통령은 후세인이 핵폭탄을 제조하려고 하며 미국이 그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
- 09월 09일-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
- 09월 12일-‘부시’ 대통령, 유엔에 대해 유엔결의안을 무시하는 이라크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의의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
- 09월 16일-이라크, 무기사찰단 복귀 무조건 수용
- 10월 07일-‘부시’ 대통령 전국 연설을 통해 후세인을 ‘살인적 압제자’로 부르고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연대를 이끌어 무장해제 시킬 것”이라고 공언
- 10월 10일-하원은 296대 133, 상원은 77대 23으로 ‘부시’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 10월 12일-美,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유엔안보리에 제출
- 11월 02일-미 항공모함 컨스텔레이션호 등 걸프만으로 출발
- 11월 08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후세인이 “무기사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11월 13일-이라크, 유엔 결의안 전격 수용
- 11월 27일-유엔 무기 사찰단, 이라크 사찰 재개
- 12월 04일-유엔 안보리, 이라크 석유 - 식량 프로그램 6개월 연장
- 12월 07일-이라크, 1만 2천쪽 분량 무기 실태 보고서 유엔에 제출
- 12월 19일-‘파월’ 국무장관, 이라크가 유엔 결의 ‘중대위반’했다고 선언
- 12월 24일-‘럼스펠드’ 국방장관 군사력 증강 개시

◦ 2003년

- 01월 11일-‘럼스펠드’ 장관, 육·해·공군·해병대 6만 2천명 걸프지역 동원령
- 01월 16일-유엔 사찰단, 이라크측 보고서에 누락된 빈 화학 탄두 11기 발견
- 01월 27일-‘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 이라크가 유엔 무장 해제 결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 01월 28일-부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며 미군에 준비태세를 명령
- 02월 05일-‘파월’ 장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위성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시하며 이라크가 WMD를 은닉하고 알-카에다와 연계됐다고 주장

- 02월 10일－프랑스·독일·벨기에가 이라크 공격에 대비한 터키의 방위지원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토분열, 프랑스·독일·러시아, 이라크 사찰 강화 요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 02월 12일－걸프지역 운집한 미군 병력, 총 15만명 육박
- 02월 14일－‘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은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
- 02월 15일－전세계 대규모 반전 시위. 영국 런던에서 최소 50만명, 호주 시드니 10만명, 미국 뉴욕 10만명 등 총 참가인원이 1천만명에 달함.
- 02월 19일－나토, 이라크 전쟁 대비한 터키 방어계획 승인
- 02월 24일－미국·영국·스페인,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 놓쳤음을 선언하는 2차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03월 01일－이라크,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 파괴 시작.
터키의회, 이라크전 투입 미군 주둔 허용안 부결
- 03월 04일－美 국방부, 걸프지역에 미군 6만명 추가배치 명령
- 03월 05일－미국, 전시내각 소집으로 전쟁임박 시사
- 03월 07일－미·영·스페인, 3월 17일을 이라크 무장해제 시한으로 못박는 최후통첩 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03월 08일－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세계 반전 시위 행사
- 03월 11일－럼스펠드 국방장관, 영국없는 이라크 전쟁 시사
- 03월 14일－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유엔안보리 결의한 통과를 위한 1주일 이상의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고 부시 행정부는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 발언을 비난
- 03월 16일－‘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는 아소레스에서 긴급회동, 외교적 노력 종료 선언
- 03월 17일－미국 유엔결의안 철회, ‘부시’ 대통령 전국에 48시간 최후 통첩 연설
- 03월 18일－이라크 지도부, 부시 대통령이 최후통첩 공식 거부.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유엔 무기사찰단원 136명 전원 이라크 철수.
영국의회, 대이라크 무력사용 승인
- 03월 19일－이라크 의회, 부시 대통령의 최후통첩 만장일치로 거부
- 03월 20일－미·영 후세인 최후통첩 거부에 이라크 침공개시
- 04월 07일－미군, 후세인 등 은신 추정 건물 맹폭, 후세인 사망설 제기
- 04월 09일－미군, 바그다드 함락 선언
- 05월 01일－‘부시’ 대통령, 사실상의 종전 선언

4. 이라크 반체제 단체

구 분	내 용	비 고
INC	• 명칭 : 이라크 국민회의(Iraq National Congress) • 구성 : 1,000여명 •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 반체제 단체로서 1992년 설립, 1995년 사담 후세인 암살 기도후 정부군의 공격으로 수백명이 사살당하고 상당수 지도자 해외 도피	• 지도자 : Ahmad Chalabi (57, 시아파, MIT/시카고대 수학) • 본부 : 런던
KDP	• 명칭 : 쿠르드 민주당(Kurdistan Democratic Party) • 군사능력 : 현역 15,000, 국민군 25,000, 소화기/경포/대전차 무기/박격포/SAM-7 보유 • 1946년 결성, 1992년 INC가입 • 이라크 북서부 지역의 비행금지지대와 다국적군 보호지역내에서 자치지구 형성거주 • 친 이라크 성향으로 1994년 친 이란 성향의 PUK와 분쟁, 1995년 터키군의 대규모 공격, 1996년 9월 이라크와 터키의 공습으로 사면초가 상태였으며, 최근 후세인에 대항하기 위해 PUK와 관계 개선, 쿠르드 국가의회에 대표파견	• 지도자 : Massoud Barzani
PUK	• 명칭 : 쿠르드 애국연합(Patriotic Union of Kurdistan) • 군사능력 : 현역 15,000 T-54/55탱크/박격포/106mm무반동총/대공포/지대공미사일 보유 • 1975년 결성, 1992년 INC 가입 •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비행금지지대와 다국적군 보호지역 내에서 자치지구 형성 거주, 친 이란 성향으로 미국 및 서유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지도자 : Jalal Talabani
CMM	• 명칭 : 입헌 군주제 운동(Constitutional Monarchy Movement) • 구성 : 소수 • 1958년 군사 쿠데타로 파이잘 국왕이 살해된 후, 그의 친척과 지지자들로 구성	• 지도자 : Sharif Ali bin ak-Hussein (이라크 마지막 국왕의 사촌)
IFOM	• 명칭 : 자유이라크 장교 운동(Iraqi Free Officers Movement) • 구성 : 30,000여명(주장) • 1996년 결성, 살리히의 군사적 배경과 경험으로 가장 잠재력이 우수한 집단	• 지도자 : al-Salihi 장군 (걸프전시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
INA	• 명칭 : 이라크 민족화합(Iraqi National Accord) • 구성 : 수백명(前 이라크 육군 및 정보장교로 구성) • 1996년 결성, 사담 및 그의 아들들에 대한 암살기도 활동 전개	• 지도자 : Ayad Allawi • 본부 : 런던
SCIRI	• 명칭 : 이라크 이슬람혁명 최고위원회(Super Council for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q) • 구성 : 4,000~8,000 • 시아파가 다수인 남부를 거점으로 1982년 형성, 1988년 이후 이란 지원하 받 후세인 전개	• 지도자 : Mohammed Baker al-Hakin

5. 세계 주요 첩보기관(1)

국가	기관명	임 무							
		군사 첩보	전략 첩보	무선 도청	국내 방첩	해외 방첩	보고서 제출	추정인원 (명)	추정예산 (달러)
미 국	CIA	•	•		•	•	대 통 령	1만5천명	15억
	DIA	•	•				국방장관		90억 (NSA포함)
	FBI				•	•	법무장관		
	NSA			•			국방장관		
	첩보·조사국 (BIR)		•				국무장관	325	1,250명
영 국	MI 6	•	•			•	대 통 령	3,500	
	중앙첩보 서비스	•					국방장관		
	MI 5				•		내무장관		
	GCHQ			•			외무장관	1만	
이스라엘	모사드		•				총 리	1,500~2,000	
	아 만	•	•	•			국 방 군 참 모 장	7,500	
	신베스				•		외무장관	1,000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프랑스	DGSC (SDECE)	•	•	•		•	총 리		
	제2국	•					국방장관		
	DST				•		내무장관		
독 일	BND	•	•	•		•	총 리	6,000	9천만
	MAD			•			국방장관		
	BFV				•		내무장관		
체 코	STB						내무장관		

세계 주요 첩보기관(2)

구 분			임 무	편 성 (현역인원)
미 국	JSOC	델타포스	• 국외 대테러 특공작전 • 국내 대테러 특공작전 (의명, 경찰/FBI 능력 초과시)	대대급 (3백여명)
		SEAL-6		175명
	육 군 특수전 사령부	특전단(그린베레)	• 비정규전, 특수경찰, 타격, 대테러 작전 및 외국내 자국민 보호 • 연합국 및 우방국과의 연합특수작전	5개 여단 (9,500명)
		75레인저연대	• 전략표적·고가치표적 파괴 및 복구 • 비행장 점령·확보, 공중강습, 매복	3개 대대 (1,700명)
		민사심리전부대	• 사지원 • 특정국 설득/선무활동	4심리전단 96민사대대
		160항공연대	• 헬기공수, 병력투입/철수, 공중안전 확보, 무장공격, 전자전 및 지휘통제작전	4개 항공대대
	해 군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단 (SEAL팀)	• 비정규전, 표적타격, 전략경찰, 해상 대테러 및 외국내 자국민 보호 • 해상 특수작전 지원	6개 팀 (2,000여명)
	공 군 특수전 사령부	16특수전비행단 362/363비행대/전대 720특수전술전대	• 범세계 특수작전 공중자산 제공 • 공중화력 및 심리전 활동 지원	21개 비행대(전)대

구 분		임 무	창 설	편성(인원)	비 고
영 국	공수특전단 (SAS)	대테러/ 대게릴라전 수행 *최정예 특수부대	1941 창설 1945 해체 1952 재창설	3개 연대 (현역1, 예비역2) *연대별 600~700명	IRA소탕(1960년대) 이란대사관 인질구출(1980) 포클랜드전 참가(1982)
	코만도	상륙전, 공중기동전	1940년	3여단 45독립여단 *3천여명	2차대전
	특수주정대 (SBS)	상륙전, 공중기동전 *코만도 중 최정예		200여명	포클랜드전 참가(1982)
	산악극지 부대	산악/혹한지 임무 *코만도 정예부대	1981년		포클랜드전 참가(1982)
	쿠르카 부대	가장 오래된 경보병 부대		3개 대대 (네팔 구르키족 구성)	
호주(SAS)		특공, 특수경찰		1개 연대 *500~600명	아프간난민처리/ 수송(2001)
프 랑 스	외인부대	대테러 외 다기능	1830년	9개 연대(8,500명)	알제리반란(1960) 결프전(1991)
	공수부대	해외 전투력 투사		11공수사단 *13,000명	
	헌병특공대 (GIGN)	대테러부대	1974년	300여명	
독 일	제9국경저격단 (GSG-9)	대테러부대, 경호/특정시설 경비	1972년	11명	소말리아 모가디슈 공항 인질구출(1977)
	잠수공작대 (KSK)	기뢰제거, 침투	1959년	250명	
이탈리아(콥스빈)		수중 특공대		200여명	
이 스 라 엘	공수부대	대테러 등 특수작전		5개 여단 (현역3, 예비역2)	엔테베 작전(1976)
	콜라니여단	산악전, 경찰			엔테베 작전(1976)
	사이렛메트칼	전략정찰, 대테러			
	사이렛13	이스라엘 SEAL팀		100명 미만	
러 시 아	알파팀	대테러(경찰)	1994년	250명	
	스페츠나츠	전략정찰, 납치/암살	1960년대 중반	6개 여단(1만여명)	아프간침공(1979)
	자스론	해외특수공작	1998년	300여명	

6. 최근 전쟁비교

구 분		걸 프 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전쟁목표		쿠웨이트 실지회복	코소보 해방	탈레반 정권축출, 알카에다 제거	후세인 정권 제거, 테러 및 WMD확산 방지
전장특성		사막지형, 고온	산악지형, 악기상	산악지형, 악기상	사막성 고온 건조
상대국 작전		사막지역 참호전투	산악전, 게릴라전	산악전, 게릴라전	사막지역 참호전투
전쟁기간		43일 (지상전 100시간)	78일	애매	45일(종전선언) *26일(사실상 종료)
국제적 지원		다국적군 구성	미국, NATO 전력	다국적군 구성	미·영·호주 등 연합군 구성
공 통 점		• 제한적 전쟁목표 추구, 적의 중심에 대한 직접 공격 지향 •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체를 결합한 새로운 전쟁, 합동작전 능력의 지속적 향상 • 감시정찰 : 위성, 공중감시 수단을 총체적으로 활용 • 공격작전 : 토마호크를 이용한 초기공격, 공중공격에 의한 정밀타격으로 적 무력화 이후 지상군 투입 * 항모 함재기, 공군전력의 통합 운용 • 심리전 : 선무방속(코만도 솔로 활용), 전단 살포 효과 극대화 * 코소보전시는 사이버전이 부각 • 정밀타격 무기, 특히 스마트 폭탄의 정밀도 지속 향상 • CIA 및 특수부대의 사전활동 중시 및 강화			
주요특성	감시·정찰작전	JSTARS, 특수부대 *스커드 미사일 추적	JSTARS, Predator	Global Hawk, Predator, NP-3C, 특수부대	첩보위성 및 Predator JSTARS, 특수부대
	항공작전	전자전기 교란,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장거리 폭격	자유로운 항공작전	스텔스 폭격기 전자교란 (GPS 교란 장치)
	지상작전	기계화 부대의 대규모 우회기동	.	소규모 신속기동부대 원거리 헬기 이동·강습	기계화 부대 기동 원거리 헬기 이동·강습
	해상작전	해상차단, 상륙기만	해상차단	해상기지 역할	해상차단, 상륙기만
	공보	전쟁상황 실증계	전쟁상황 실증계	철저한 작전보안	전쟁상황 실증계 (전투부대 동참)
	기타	패트리엇 미사일	흑연탄(전기차단)	대형폭탄, 동굴지역 파괴폭탄	E-Bomb, MOAB탄